



모교 재학생 60명 DC 방문

지난 2월 6일부터 18일까지 모교 재학생 60명이 워싱턴에서 주미한국대사관, World Bank, CSIS, 미의회 등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싱크탱크를 방문하였다.

모교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본부에서 주관하는 'SNU in World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부생 60명이 참가하였다. 출국 전 사전 강의를 통해 미국의 문화와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했고, 워싱턴 현지 주요 기관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귀중한 현장학습을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저명인사 및 전문가의 강의를 통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조별 활동을 통한 단체능력 강화 및 도전정신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현지방문 일정 중 선후배간 만남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2월 13일에는 World Bank를 방문해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 후, 이어진 강의에서는 IMF의 최승모 박사(경제 95)께서 IMF의 역할 및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World Bank Group/IMF 한국인 직원협회 (회장 이장용(철학 91)) 주관으로, World Bank와 IMF에 진출한 모교 선배들을 다수 포함한 한국인 선배들과의 Q&A Session을 박문경 동문(외교 07)의 사회로 진행했다.

아울러 모든 강의 일정을 마친 후에는 World Bank 내의 구내 Cafeteria에서 선

배들과 함께 점심을 하며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기구 진출의 의미,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 공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모교 국제협력본부는 매년 'SNU in World Program'을 통해 워싱턴뿐만 아니라 런던, 제네바, 파리, 베이징, 마드리드, 모스크바 등 세계각지의 주요도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 | |
|---|--|
| 1 모교 재학생 60명 DC 방문 | 11 강신용 3초의 미학/피한방울로 말라리아 진단/박소영 후궁탈출열연 |
| 2 강경희:서울대인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나/ 이항렬: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 12 장동민: 선진한국-부끄러운 민낯(하) |
| 3 민경훈:오바마/하웅출:대통령이 법의식 | 13 김연경:한권의 책/金東權:낙빈왕(駱賓王) 이야기/ |
| 4 모교졸업식/이심자: 이 시대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하나 | 14 특집:한국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담 |
| 5 모교입학식/윤상래 차기회장님 필라델피아 방문 | 15 허유선, 정선주:오늘의 나 한마디/My Story & Your History:이종삼 |
| 6 정인식, 박숙자부부 도서관시설 2억원 쾌척/글로벌 사회공헌단 | 16 지부소개-북가주 |
| 참간 4주년 행사/이해중교수 Dana Chorale 한국 순회공연 예정 | 18 임희례:산타크루즈/최은관:러시아의 이문화와 서양화(상) |
| 7 김영덕, 성주경, 김중윤: 제 15대 미주 동창회 회장 출마자추천사 | 19 노영일:줄리오/Fact Finding on LELA Art Festival/원고모집 |
| 8 조지아 정기총회 및 신년잔치/뉴욕악대 동문의 밤/ 휴스턴 동창회 장학생 모집 | 20 치매원인물질 가위로 잘라/이명재:이책을 읽고 도덕경을 논하라 |
| 9 윤성혁동문 프린스턴 리뷰 인수/스누버안에 우버있다?/ 시애틀 시니어 포럼 경제전망 | 21 신용남:불멸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정성희:영재는 행복한가? |
| 10 김경욱 동문 작품 강연회/이근민 동문 침묵의 시전사회에 초대/ 이삼은 동문 라보엘 열연 | 22 박상철 산수화 전시회/이영우, 이찬재:손주에게 전하는 사랑 |
| | 23 박준창:용의자 X의 현신/김미래:청춘 시나리오 |
| | 24 분당서울대병원 복강경 간절제수술 1,000례 달성/ 최용환:이집트 파라오는 고구려의 가죽인가 |
| | 25 이달의 사진/편집후기 |



강경희(인문 84)

기자(記者)가 된 거창한 이유는 없다. 박한 재주나마 우리 사회에 정직한 관찰자로 한 가닥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직업의식에서 출발했다. 신문사 밥 먹고 산지만 25년. 신문 안 만드는 토요일 빼고 1년 300일을 허구한 날 역사적 소명으로 가슴 벅차게 보낼 순 없으니 때론 매너리즘에, 때론 무력감과 회의감에 부유했던 날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운이 좋았다. 기자에게 ‘운 좋다’는 건 재물 복도, 권세복도 아닌, 일복 많다는 것과 동의어다. 대형 뉴스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취재하고 기록하고 훈수까지 들 수 있는 게 제일 큰 행운이다.

기자 생활 대부분을 경제 기자로 보냈다. 초년병 경제기자 시절 재정경제원 출입기자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파리특파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막 경제부에 복귀한 2008년 9월 발밑이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유럽도 재정위기를 겪었다. 한국은 용케 넘기기가 싫었다. 글로벌 경



이향열(법대 57)

ABC 등 많은 신문과 방송들은 국민의 적이고 가짜뉴스(Fake News)들을 조장하므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난에 맞붙어 많은 언론들은 Trump는 허위와 과장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기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민주주의가 걱정된다는 우려로 Trump 담화를 반박하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도 Trump 대통령은 Pathological liar (병리학적 거짓말쟁이)며, 또한 반사회적(Sociopath) 인간으로 자기의견과 반대되거나 비난하는 자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고 자기만이 옳다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한국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발단이 중앙일보가 하는 jtbc TV 방송이 허위로 Computer Tablet 을 조작해 사건을 만들었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이런 조작극에 편승하여 야당과 같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또한 초반기에 촛불 데모에 참석하였던 시민들은 기만당하여 광우병 촛불데모 때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데모를 했다는 것이다.

“실패로 끝난 미국신문 통제”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언론사들의 언론의 중립성, 진실성에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두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과 공정성이 절대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심정에서 쓰는 것이다.

미국 언론계의 거장이었던 정치 평론가故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 은 언론은 민족주의 햇불이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언론들은 그 중요성 때문에 임법, 사법, 행정부 이외에 언론계는 정부의 제 4부로 불려진다. 즉 미국은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민주주의가 균형있게 발전한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아버지격인 존 록크(John Locke)가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된 현 미국정치제도(행정, 입법, 사법, 대법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하에서 또는 한국같이 우후죽순의 당들이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불안정한 민주주의 상태에서 정부의 감시 역할은 언론들이 해야 한다.

서울대인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나

제 위기 8년. 바깥 사정도 나쁘고 반세기 버텨온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경제 체력이 똑똑 떨어졌다. 3%대 성장도 못 지키고 2%대로 주저앉았다. 경제라는 하부 구조는 만성 질환이 깊어지는데 정치라는 상부 구조는 오히려 후퇴하는 걸 보면서 절망했다. 차라리 IMF외환위기 같은 급성질환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를 공감하면 극복할 의지도 생기지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각자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아우성인 사회는 절망 그 자체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대한민국이 어느 한 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 없지만 올해는 유별났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격랑 속에 2016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프츠재단에 대한 TV조선 보도로 촉발돼 한겨레의 심층 보도, 그리고 이화여대 사태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권력 비리가 드러나고 국정은 리더십 공백을 맞았다. 이어진 시민들의 촛불 시위.

무릎을 쳤다. 위기가 늘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니다.

예상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도 아니다. 만성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경제적 처방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덕성과 공인(公人) 의식, 직업정신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정한 시장 경제도, 법치도, 기회균등도 열리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 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40년 인연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안에서 버젓이 작동한 건 똑똑한 마리를 출세와 권력 사유화에만 굴렸던 부도덕한 엘리트들이 호위무사가 되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잘났으나 부도덕한 사람과 잘나지 않아보여도 정직하고 옳은 시민, 누가 우리 사회에 흥기(凶器)이고 누가 이기(利器)인가.

학창 시절 이 한 구절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많은 서울대인이 평생 가슴에 품고 수시로 되새겨야 할 말이다. 서울대인이 높은 도덕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는 대한민국도, 관악도 고개 속이게 만드는 암울한 미래다.

(모교동창회보/조선일보 논설위원)

규정을 입법화해 대통령이 납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대폭 제한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국제청에 대한 재무부의 감독 권한을 박탈해 독립적인 금융감독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제청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했다.

Ironical 하게 이런 법 때문에 Trump는 40년간의 모든 과거 대통령이 개인 세금보고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자기 세금보고를 발표 안하고 국민들이 그런 것에는 관심없다고 버티고 있다.

“언론개혁 시장” 에 맡겨라.

물론 언론이 민족주의 체제에서 극히 중요하므로 정치 경제 개혁을 이행하는데 언론 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시급한 문제는 세계 질서를 안전한 방향으로 잡아 국제분쟁을 막으며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19세기에 있었던 중상경제주의(Mercantilism)로 서로 자기 나라의 경제 이익만 찾는 Trump 대통령이 채택한 경제원칙은 20세기초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세계경제 대공황만 초래했으며 그 이후 세계는 그 여파로 1차대전, 2차대전 방전시대를 쓰라리게 경험했다. 다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고립주의와 국수적인 경제 정책을 세계의 대표국인 미국, 가장 힘이 있고 부자인 나라가 채택하면 참담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성을 중요히 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정책을 비난한다고 모든 언론을 싸잡아 거짓말만 전달하는 매체로 폐지시킨다면 Hitler와 그의 선전상 Goebel이 저지른 똑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언론의 자유를 폐지하고 자기가 선택한 기관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Putin, 시진핑, 김정은, Duerte, 과거의 네로황제, Stalin, Peron, Hitler등의 정권들이 어떻게 붕괴되었으며, 어떻게 끝났는가를 역사는 자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한국의 경우 정치 개혁이 먼저 되어야 언론개혁도 수반될 것같으나, 현재 한국은 남북문제와 핵무기 안보문제등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며 사회가 양분되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소산인 동서분열, 보수와 진보파의 분열을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합성에 의존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중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관하지 않는 공정한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미국헌법이나 한국헌법이나 둘다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논설위원장, 전 세퍼드대학 석좌교수)



민경훈(법대 58)

지난 주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으로 고향인 시카고에서 있는 그의 고별 연설은 어쩌서 그가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차분하고 논리적이면서 유창하고 감동적인 그의 연설은 그가 웅변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트위터를 통해 비명 비슷한 외마디 소리만 지를 줄 아는 도널드 트럼프와 너무 비교된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미국 경제를 살려냈고 수천 만명의 무보험자가 건강 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9/11 사태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 이 사살됐음을 언급하는 등 자신이 이룩한 치적을 열거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건국 문서에 적힌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예와 노예제 폐지론자가 속삭인 생각, 이민자와 개척민과 정의를 위해 행진했던 사람들이 노래한 정신, 외국의 정장과 달의 표면에 국기를 박은 사람들이 확인한 믿음, 아직 쓰이지 않은 역사를 가진 모든 미국민의 가슴 한복판에 있는 믿음, 바로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냈다는 것입니다.” 는 말로 고별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그의 집권 8년이 어쩌서 애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채 끝났는지도 말해주고 있다. 한 시간 가까운 그의 연설 어디에도 그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찾아 볼 수 없다. 2009년 그가 집권했을 때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의 통합과 포용, 희망의 메시지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미 유권자들은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을 몰아내고 민주당에게 의회



하용술(문리 67)

를 위해서 일한 나를 탄핵으로 몰아 세우느냐는 대통령의 항변이 그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은 대통령의 정결결백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의도를 선의로 포장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를 통해 대통령이 소위 ‘막지 않았고, 쟁기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자신은 부패의 진행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숨겨져 있는 억울함은 과거 정권과 내가 한 게 뭐가 그리 다르냐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대통령 측 주장에서 한국사회에 팽배한 낡은 관행을 보게 된다. 국가주도형 산업화는 궁극적 성과를 중요시하고 과정과 절차는 수시로 무시했다.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면서 국가와 기업 간에 많은 것을 주고 받았다. 또 상급자와 하급 집행자 간에는 절차를 따라 구제적 눈의와 명확한 내용을 합의하기보다 상황에 지배되면서 결과만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 자신도 기업의 경제행위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절차 규정을 무시하는 지시를 내리곤 했다.

그레도 결과가 좋거나 내부의 불법성과 실수가 밖으로 드러나지않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되곤 했다. 대신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면 갑자기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 이때 법은 관련 당사자가 정

오바마

다수당 지위를 부여했다. 오바마가 좀 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펼쳤더라면 건강 보험, 세계 개혁, 사회 복지 제도 개선, 불법체류자 문제 등 폭넓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믿고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밀어부쳤다.



그 결과 공화당 단 한 표의 지지도 얻지 못한채 오바마케 어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고 다른 현안에 대해 타협안을 찾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공화당과의 협력이 물 건너간 상태에서 오바마는 행정 명령으로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 미성년자녀인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DACA) 명령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야당 협조 없는 법안 제정과 대통령령의 문제는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하루 아침에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중 오바마케어 폐지를 포함 오바마가 내린 행정 명령 중 상당수를 뒤집을

대통령의 법의식

책 집행과정에서 부정을 통해 홀로 착복하지 않거나 소위 공유한 경우라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했다. 동시에 최종 책임은 기관장이 짊어지면서 하부 직원은 면책되는 게 상례였다. 이런 관행은 공식적 법체계와 실제 관행 간



에 커다란 격차를 초래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은 범법자들이 범법을 인정하기보다 운이 없어서 걸렸거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생각이 매달리게 했다. 특검 압수수사를 방해하고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는 박 대통령의 이런 왜곡된 법의식이 숨어 있다. 이번 사태에서 놀라운 점은 민주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조차도 구태의연한 법 관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 초반에는 성급히 절차적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하다가 사태가 불리해 지면서 스스로 절차를 무시하는 발인은 물론, 사심이

것을 공언해왔다.

오바마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미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응징하는 것으로 답했다. 오바마 자신만 2012년 선거 재선에 성공했을뿐 전국적으로 지난 8년간 민주당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줬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99개 상하원 중(네브라스카만 단원제) 69개가 공화당 다수며 50개 주지사 직중 33개가 공화당 차지다. 오바마 집권 8년간 선거에서 진 민주당 주 상하원 의원 수만 900명에 달한다.

오바마 집권 8년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그 속도는 연 2%대로 역대 회복 중 가장 느리다. 실업률은 8년내 최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업 찾기를 포기했고 임금도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빈부 격차는 오바마 취임 때보다 더 커졌다.

빈 라덴은 사살됐지만 그 뒤를 이은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무엇보다 시리아 내전 방치로 수백만의 이재민과 수십만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민 대다수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 미국인들이 ‘오바마 집권 3기’라 불린 힐러리 클린턴을 거부하고 그와 정반대인 도널드 트럼프를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유학생과 백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그가 첫 흑인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오바마의 역사적 임지는 확고하다. 수많은 장에에도 불구하고 인종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미국의 저력을 온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가 남은 많은 시간을 스스로 고별사에서 밝힌대로 미국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기 바란다. <논설위원>

없었다는 상황 논리로 나가고 있다. “선의”였다는 실패를 내세워 그것이 곧바로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낡은 법의식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결합해 보면, 최순실 등 주변을 어떻게 대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 관심한 것은 법 제정에 관여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조차 대통령의 청렴성을 내세워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불법적 청와대 출입이나 비밀문서 노출, 부정징사, 불법시술 등 대통령의 다양한 절차적 불법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이런 법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사심이 없으니 괜찮다가나 할 만큼 했으니 그만 하자는 구태의연한 정서를 보이고 있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정치권의 법의식은 변하고 있는가? 아무리 국가를 위한다는 의도를 내세운다 해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규범이 어느 정도 인식되고 정착되고 있는가? 또한 자신과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잣대 사이에 간격은 얼마나 좁아든 것인가?

한국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법규범과 사회관행 사이의 엄청난 격차에 시달려 왔다. 한국사회가 한 단계 높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선의든, 선의로 포장을 하든 불법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깊이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지를 전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나마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법문화를 재인식하고 정착시키는 데 박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분회 브레인네트웍 의장, 워싱턴대 석좌교수

공고

- ❖ 일시: 6월 23일 – 25일
- ❖ 문의: 윤상래(978-835-0100) 이상운(508-251-9691) 장수인(978-264-2988)
- ❖ Hotel: Hilton Boston/Woburn
2 FORBES ROAD, WOBURN, MASSACHUSETTS, 01801, USA
- ❖ Tel: +1-781-932-0999 / Fax: +1-781-932-0903 www.bostonwoburn.hilton.com
- ❖ 예약마감: 5월 23일, 화 (\$119 King Bed / \$129 Double bed/night)
(2017년 5월 23일까지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할인 가격이 적용됨)
- ❖ Group N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EVENT
- ❖ Group Code: SE622

제 26차 민주 평의원회의

모교 졸업식 스펙보다 품성... 사회적 약자 배려를

2월 24일 오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71회 학위수여식 행사(졸업식)이 열렸다.

학사 2422명, 석사 1804명, 박사 699명 등 총 4925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학위수여식에서 '선한 인재' 육성을 강조한 성낙인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내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 일을 찾아야 한다"며 "삶의 깊이와 철학이 느껴지는 품격있는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갖춘 서울대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총장의 인사말도 중 서울대본부점기 소속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협약 철회'와 '학생탄압'을 규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식당 곳곳에 내걸며 항의했지만 행사는 별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입학 후 9년 만에 늦깎이 졸업을 하게 된 이진열(28세·종교학과, 사진 좌) 동문은 졸업생 대표로 한 연설에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잃을 게 없다'는 긍정의 힘이 봉사활동과 창업의 원동력이 됐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남들은 스펙도 안 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는 걸 보면서 나 역시 자신감을 얻었다"며 졸업생들에게 "약자를 배려하는 지식인, 바른 정신을 가진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동문이 2013년 창업한 '마이돌'은 한류 스타들과 가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스마트폰 잠금화면 앱이다. 스마트폰을 켜면 잠금화면에서 공유나 송중기 같은 한

류 스타와 가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다.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1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국민 빠순이 앱'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특히 전체 중 90% 이상이 해외 사용자로 '문화 한류'의 선봉장 노릇을 푼듯 해내고 있다. 창업이후인 2014년 컴퍼니케이와 본엔젤스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유치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법과대학에서는 '광장'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쓴 소설가 최인훈 씨(81, 사진 중)가 입학 6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최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월남했다. 이후 1952년 모교 법대에 입학했으나 졸업 1학기를 남겨둔 4학년 2학기에 등록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했다. 최씨는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이 혼란스러워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씨는 1957년 제적됐다.

대학 중퇴 후 최씨는 1960년 중편소설 '광장'을 세상에 내놨다. 이 책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모두 비판함으로써 분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대



중의 호평을 끌어냈다. 이후 '회색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 주로 남북 분단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최씨는 간간이 인터뷰를 통해 대학 졸업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의 작품을 연구한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등 10여명은 최씨의 명예졸업장 수여를 성낙인 총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적인 생명과학자이자 국내 바이오 산업의 개척자인 신승일(79·사진 우) 박사도 입학 60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 신 박사는 1957년

서울대 화학과에 입학해 3년 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에 새로 입학했고 브랜디스대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후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해 198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모든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되게 했고 1994년에는 유엔의 국제백신연구소(IVI)를 서울에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성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신 박사가 생명과학의 산업화와 백신 개발에서 쌓은 업적과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시대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나는 '그래서'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사랑의 언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앞의 증가는 경이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고통 역시 수반한다. 이상화된 존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서로에 대해, 차라리 몰랐더라면 더욱 좋았을 뻔한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볼 것, 못 볼 것 다 본 사이'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같은 보드라운은 설 자리를 잃기 쉽지 않다. 어떤 임계점을 지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갖은 곡절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설령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아픈 아홉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해도 다른 한 가지의 마음이 그 모두를 넘어서고야 마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다.

'서정시를 쓰기 어려운 시대', 세상사에서 희망을 말하는 일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란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낭만은 점차 비판이 되었고, 인류의 진보를 철저히 믿었던 스무 살 대학생은 불과 4, 5년의 시간을 거쳐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품게 되었다. 한때 들도 없는 '희망 예찬론자'였던 이의 순진함을 세상은 손쉽게 비웃었고,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잃었다. 여기,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라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여 자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여성을 두고 "그렇게, 왜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녀서"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도 함께 했던 집회에서, 그 자리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뻔뻔하게도 부검하려는 '국가'가 있었다. 넘쳐나는 가벼움 속에서, '사람인데 사람이 게 어색(오은, '미시감')'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한다. 혹자는 주권자 시민의 무서운 힘을 보았다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김 아무개의 예상과 달리 촛불이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중국에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은 가능할까? 박근혜-최순실이라는 '거악'을 제거하고 나면, 나의 세상은 좀더 살기 좋은 곳이 될까? 잘 모르겠다.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산적한 이 땅에 희망이 있기는 한가? 나는 '캐나다로 이민을 갈 게 아니라 화성에 사는 캄보디아 이민을 갈 게 아니라 화성에 별로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시절일수록, 비판적인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되새길 때에만 비

로소 '극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살기 그래도 좋아졌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데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고 싶다. 앞이 막막하기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나를 토닥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같은 길을 함께 걷자 약속한 이들이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파렴치함이 판치는 세상에, 제 몸애 생체기를 내면서도 '계속 싸우는 것 외에는 달리 어찌 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뭉쳐 만들어낸 절박함의 온기가 다시금 나를 데우곤 했다.

희망의 언어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단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만이다. '그저 스스로 여기 존재하는 희망'이란 없는 것이고, 결국 희망이란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하는 수밖에 없는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아니니 그 어떤 것도 말할 가치가 없다'라는,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의 명대사는 현실의 부조리와 절망을 억지로 외면하려는 '최면'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허무와 비판이 이미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끈질기게 덧붙여 마땅한 것은 밝은 미래를 갈구하는 자세뿐이라는, 간절한 의욕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시절일수록, 더욱 약삭 같이 일상을 지켜내고, 각자

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 그리고 '해일이 몰려올 때 다른 이를 마구 밀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해 손을 뻗어주는 것'(페미니스트 시국선언 중), 그것이 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혹여 자신들의 존재로 인해 표를 얻는데 불리하지는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도라에몽 탈'까지 써 가며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자신이 낙선할 경우 세월호 진상규명노력의 동력이 타격받을 것을 걱정한 박 변호사에게 "우리는 늘 지는 사람들이 아니냐"며 도리어 격려의 포용을 전했다는 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애써 노력한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귀한 이들에게 내어줄 마지막 한 줌의 온기 정도는 더욱 기를 쓰고 지켜내야 한다. 다행히도 나에게서는 아직, 희망을 노래할 힘이 조금은 더 남았다.

제목은 최영미 시인의 '너에게로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에서 빌려왔음을 밝힙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인간을 믿고 싶은 사람. 일곱 살 때부터 글쟁이가 되고 싶었고, 스물넷에 보니 어느새 '프로블런러'가 되어 있었다. 부족한 나의 존재가 세상에 아주 약간의 온기라도 보탬 수 있기를.)

모교 입학식 "최근 서울대인들 부끄러운 모습 많아"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모르는 리더는 모든 이를 불행하게 합니다."

성낙인 모교 총장은 2일 오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 2017학년도 입학식에서 "겸손함과 열린 사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성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은 학부 3363명, 대학원 3360명으로 총 6723명이다.

성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서울대 졸업생들은 그간 정계·관계·재계를 아울러서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엘리트로 각계각층에서 활약해 왔다"면서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성 총장은 "학교 이튿에 도착하면 오만함과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다"면서 "출세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미 공부 잘하는 인재는 우리 사회에

넘쳐난다"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덧붙인 성 총장은 "오늘 이후 '서울대학교'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울수록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갈 것"이라며 "서울대학교라는 이름보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총장은 "이 순간부터 이곳이 '서울대학교'라는 것을 잊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겸손함과 열린 사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성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성 총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란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善)한 인재"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식인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 피터 안드레 알트(57)가 축사 연사로 초청돼 대학 생활의 중요성,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 등을 강조하며 서울대 신입생들의 입학에 축하했다.

윤상래 차기회장팀 필라델피아 방문



2017년 평의원의회의 준비모임이 2월 11일 보스턴에서 있었다. 14대 윤상래(수의 62) 차기회장의 주도도 김은한, 정정욱, 김문소, 고일석, 박영철, 정선주, 이강원, 홍지복, 정태영, 이영인, 이정수, 김제성, 김복섭, 이길자, 허유선, 이상운 등 17명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김문소(수의 58) 동문은 보스턴이 학구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만큼 이전의 평의원회의 보다 학구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장소 방문들을 포함시켜서 훌륭한 평의원회의가 되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이상운(수의 87) 사무총장과 김제성(공대 87) 재무국장은 평의원들이 목을 예정한 호텔의 예약과 정아제와 만찬의 프로그램 진행과 식사 메뉴 등 평의원회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 설명하였다.

또한, 내년엔 진행될 Brain Network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진지하게 논의되며, 보스턴의 학구적인 장점을 이용해 수준높고, 많은 평의원에 관심있는 주제와 연사로 Brain Network 을 알차게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히 이번 평의원회의의 Key Note Speaker 로 초빙된 Dartmouth College의 Jennifer Lind 교수(Associate Pro-

fessor in the Department of Government)의 강연 이해를 돕기 위한 준비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Lind 교수는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라는 부제에 붙은 'Sorry States'의 저자로 현재 미국과 한국,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좋은 강연이 될 예정이다.

또한 평의원회의의 전자제에서는 특별히 중국전문분야 이준근 박사가 특별초빙되어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강연을 하기로 했다. 2017년 평의원회의는 15대 차기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윤상래 차기회장은 김원영(미대 81) 차기 편집위원장과 이정수(공대 71) 동문과 함께 3월 3일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이날 저녁 열린 3월호 편집회의에 참석하고(사진) 4일에는 미주동창회 사무국을 방문해 현 임원진이 그동안 준비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액세스 프로그램과 동창회 재정 관리를 해 온 콰북에 대한 설명을 손재욱 회장과 이성숙 재무국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김원영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동창회보 발행의 제반 문제점을 듣고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가 나가야 할 방향등을 의논했다.

매월 만원(\$10)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0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or.kr에 방문하시어 미주재단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LA사무소 전화 +1-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Facebook 오픈!

행복한 나눔을 곁에 두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습관, 만만한 기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www.facebook.com/giving2snu

선한 인재 장학금 후원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진(간호대)	\$100,000	오상희(간호대)
박종수(수의대)	\$10,000	윤영자(간호대)
고광선(공대)	\$5,000	박원준(공대)
염동해(농대)	\$3,600	박해욱(간호대)
손재욱(가정대)	\$2,000	Chang Lee(공대)
임창희(공대)	\$1,500	권영달(문리대) & 이시한
김기태(의대)	\$1,000	이병
김명숙(간호대)	\$500	이창성(농대)
로렌스한(대학원)	\$500	장순열(사대)
문순덕(간호대)	\$500	

2017.1.31 약정기준

정인식·박숙자 부부 모교 도서관 시설기금 2억원 쾌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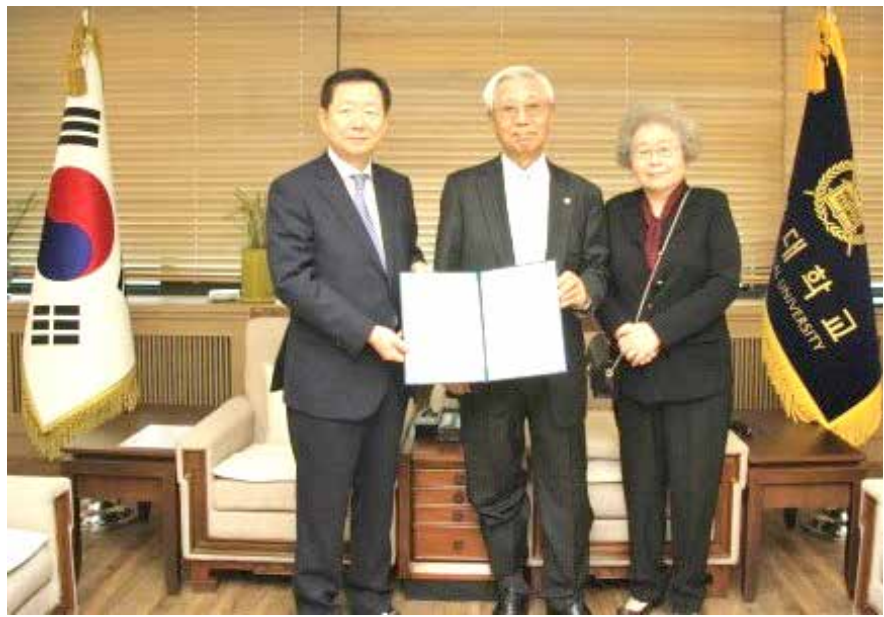
정인식(상대 경제학과 58년, 뉴욕·박숙자 부부)가 모교에 정인식·박숙자 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억원을 쾌척했다.

총장과 정인식·박숙자 부부를 비롯해 홍성걸 중앙도서관 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성낙인 총장은 “동문님의 기금은 서울대의 학문적 궁지와 자부심으로 도서관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의 전당으로 만드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인식 동문은 “모교인 서울대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번 도서관 기금으로 후배들이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서



울대 동문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뉴욕골든 클럽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인식 동문은 서울대 미주동창회 뉴욕지부 회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한 모교 발전을 후원하고 있다.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 창단 4주년 행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담당하는 중심 조직으로 기능하고자 2013년에 창단된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16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다.

S.M.A.R.T 창업경진대회'도 열렸다.

유모차의 안전벨트 제동 장치, 스마트폰 재활용을 통한 홈네트워크 제공 시스템,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비닐하우스 제설장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가 여럿 나왔다.

이 밖에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공헌 관련 시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와 대학생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신선경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기술과 사람을 잇는 사회공헌'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종익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글로벌사회공헌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사회공헌의 선도적 모델을 발굴,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수월성과 공헌성을 겸비한 선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사회공헌, 디자인 활동 체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2017 국제

이해종 교수 Youngstown 주립대 DANA Chorale 한국 순회공연 예정



작년 4월에 시카고의 한인들이 주최하는 제 9회 장학금 모금 연주회에 초청 받아서 연주를 하고 열정적이 환영을 받았던 영스타운 주립대학교의 Dana Chorale (지휘: 이해종 (음대 82) 교수)이 시카고 한인 청중들의 열렬한 추천에 힘입어 한국순회연주를 계획하게 되었다.

동시에 대학합창단 30여명이 12일 동안 계획하는 연주여행이라 전체 예산이 8만만 정도로 만만치 않아서, 여러모로 후원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이 교수는 www.ysufoundation.com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Donation 방법을 알려왔다.

이해종 교수는 지난 10월 중순에 부산국제 합창 축제 및 경연대회에 국제 심사위원 6명 중의 한 사람으로 초대되어 한국을 방문한 동안 한국 순회연주의 상세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주 일정은 5월 8일 부터 5월 19일 까지이고, 서울, 청주, 삼척, 창원, 부산에서 연주를 하게 된다.

연주 프로그램은 흑인영가와 가스펠송 그리고 한국 가곡과 민요 등을 반반으로 준비했다고 이 교수가 전했다. 연주 프로그램 제목은 '미국에서 한국으로/America to Korea'이다.

“위의 YSU Foundation 웹사이트에 가서서 “Click here to Donate”을 클릭하고; 다음에 “College of Creative Arts & Communication”을 클릭하고; 다음에 “Select Gift Designation”에서 “Dana Chorale Korea Trip”을 클릭하고 빈칸에 필요한 정보를 넣고 Submit 하시던 도내이션이 완성됩니다.

전체 도내이션 액수가 저희의 연주여행 비용으로 사용되고, Tax Deduction이 됩니다.”

추천사

제 15대 (2019.7-2021.6) 미주동창회 회장으로 출마한 세 후보에 대한 '추천사' 를 소개합니다.



김영덕(공대 53)

미주 동창회가 결성된 초창기부터 지난 4반세기 동안 그 발전 과정을 쫓아 지켜봐 온 본인은 근래에 많이 업그레이드된 동창회의 차차기 회장 후보로 뉴욕의 김창수 동문을 추천하게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공대 53학번으로 지난 수십 년간 뉴욕 지역동창회와 호흡을 같이 해오고 있으며, 이사, 이사장, 회장 등의 직책을 맡아오면서 김창수(약대 64, 경영대학원 68) 동문과는 공적 시작으로 자주 만나는 사이여서, 그의 인품과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동문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동문은 동창회보에 여러 해 동안 꾸준히 기고를 해오고 있어서 많은 동문들이 그 이름에 친숙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뉴욕 지역 동창회에서는 그가 열기왕성한 30대 초부터 수십년간 동창회의 임원으로 활동해 온 관계로 폭넓은 인맥을 유지해왔고, 동창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34대 회장직을 지낸 김창수 동문은 '만년감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감사직을 오랫동안 맡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장과 약대동창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에서는 평의원과 동창회보 편집위원, 나눔위원 등으로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후보: 김창수 (약대 64) NY

김 동문은 앞으로 동창회장직을 맡으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동창회를 아주 훌륭하게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그는 동창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정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고 투철한 것을 옆에서 느껴왔습니다.

김 동문은 타고난 건강 체질도 동창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깔끔한 그의 성격대로 비영리단체인 동창회의 행정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전문직종에서도 성공하였을뿐 아니라 성실한 삶과 낙관적이고 강한 추진력으로 뉴욕 동창회와 동포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는 김동문이 그러한 자질로 동창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보다 많은 선후배들이 동창회 활동에 동참하며 몰입양면으로 적극 협조하리라고 믿습니다.

동창회 조직 안에 전문 분과위원회를 결성한다든가, 장차 동창회 본부를 특정 대도시 안에 둔다든가, 노력의 동문들을 중심으로 본인 자산의 일부를 동창회에 기증 내지 상속하는 캠페인을 제시하는 등 그의 아이디어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창회보에는 물론 동포 일간지에 경제컬럼을 집필하고 있는 김동문은 동창회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동창회의 각종 활동과 펀드레이징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근래에 미주 동창회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동창회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지난 2월호 동창회보에 밝힌 김동문의 포부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동문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덕(공대 53, 공학박사, 뉴욕 동창회 16대 이사장, 21대 회장)



성주경(상대 68)

이서희 (법대 70)동문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15대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성주경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입니다.

그간 이서희 동문과 만나면서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무엇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마침 이번 추천서를 쓰면서 좀더 자세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서희 동문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2014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직을 맡을 때의 업무수행,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동문의 형제는 3 형제로 모두 서울대 동문입니다. 부부간의 금실도 좋고, 자녀들은 잘 성장하여 각자 사회에서 제 몫을 하고 있으며, 이동문은 미국대학원에서 정치학 Ph D과정을 하는 도중에 무역업으로 뛰어들게 되어, 지금까지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친구관계는 원만합니다. 남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너무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인 성격이 아니고, 정해진 일이나 옳다고 믿는 일은 꼭 해내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보여준 이동문의 leadership은 주변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괄목합니다. 사실 사소한 일부부터 복잡한 일까지 동창회의 업무를 하다가보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동문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묵묵히 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 이서희 (법대 70) CA

또한 이동문은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강합니다. 동창회는 친목단체라기 보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동문은 회장을 맡으면서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전직회장님들이 시행해온 좋은 행사에 더하여 시도한 일들, 그중에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것으로 회비제도 도입, 그간 관심 밖으로 되어 있었던 homepage를 동창회 history 기록목적으로 새롭게 제작, 첫 문화행사 시도, 미루어 왔던 비영리단체 IRS 세금혜택 인가 등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일일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동문의 소탈한 성격이 좋아한 많은 동문들이 도움에 적극적이었으며, 일을 열심히 한 후에는 임원들과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단합함으로써 모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활동으로는 LA평통회장을 맡으면서 한인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큼니다. 평화통일의 기초를 동포사회에 뿌리 내리고자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동포사회에 민주평통의 역할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도한 한인축제의 날의 도보행진, 청소년의 정체성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발간하여 일부 미 초·중·고 및 한글학교에 배부한 통일 한글교재 “대한민국: 발전과 통일”, 통일무지개운동의 미주 첫 조직 및 실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과 배려 및 radio talk show에 출연하여 도움의 필요성을 강조, 연평도 피폭시 NBC channel 4와의 interview에서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망임을 강조, 이외에도 언급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일,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의 형성 및 운영 등을 이동문이 그동안 체험한 경험과 인품이 바탕이 되어 원만하고 순조롭게 잘 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서희 동문을 제15대 미주 동창회 회장 후보로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경 (상대 68),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김종우(사대 51)

미주동창회는 그간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이제는 동창 신문 7천부를 월간으로 발행하며, 지역간 동창간 소통과 교류를 꾀하며, e 월간지 발행을 통하여 전 세계 동문을 하나로 묶는 시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동창회를 통하여, 나눔, 장학 사업을 부분적이거나 시행하여 각 지역과 사회에 적으나마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애교심과 사명감으로 서로 교류하고 연합하여 모두가 지향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주 지역 동창회를 더 지원하고 강화하여 사회가 필요한 일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철한 판단력과 인화력 그리고 리더십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참신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십여년 장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보여준 그의 능력 그리고 30대 지역 동창회를 이끌며 보여준 그의 헌신과 사명감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신용남 동문을 그 자리에, 미주 총동창회를 이끌어가는 봉사의 자리에 기꺼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마치고, 뉴욕시 교육청 시험관을 지내다, 머시 대학교 수, 동서대학교 총장 역임 후 은퇴했습니다. 데이빗 당킨스 뉴욕시장 재임 시에는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대 뉴욕동창회장을 역임했고, 그 임기 동안, 장학 program 출범, 음대 미주 순회공연 뉴욕 공연을 주관했습니다.



후보: 신용남 (농대 70) NY

저와 신용남은 지난 10여년동안 해마다 장학 학생 선발, 수여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신용남은 동창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이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변호사는 농대를 나와, 각고의 노력으로 모국어와 다른 영어권에서 항공경영학, 행정학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법률학에 도전하여, 1997년에 뉴욕 뉴저지 그리고 연방 법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직장을 가지고 학업을 병행한 결과라 더욱 감동스러운 일이 되어, 유명 일간지에서 그의 성취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목표를 정한 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실을 얻어내는 그의 굳은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1. 신용남은 변호사로서, 그의 전문직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 주류사회와의 교류에도 능력을 끼치는 덕망있는 자랑스러운 동문입니다. 동창회는 우리들만의 친목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 우리가 받은 것을 환원해야 한다고, 사회를 위한 program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신용남은 강조합니다. 즉 장학금 확장, 교포 인권문제(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미국 사회의 자선 단체와의 연결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 신용남은 동창회를 위해 중요한 직무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정관 관리 위원회, 뉴욕지역 회장, 상임 부회장, 장학위원, 부위원장, 이사)를 담당해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이런 봉사정신은 앞으로 미주총동창회를 하나로 묶고, 세우고, 전세계를 향해 출범하는데 하나의 준비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 신용남은 한국인의 전통을 본받아 겸손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함을 몸소 실천합니다. 이것은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Christianity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4. 신변호사의 사무실은 동문 및 지방 동창회와의 통신, 소통과 교류를 효율적으로 사무처리 하는데 크게 이로운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신용남이 비전으로 내세운 선거 공약; 서울대 클럽 설립, 재산 5% 기부, 전반기 모금, 선상 크루즈 세미나, 미주 순회 세미나/ 음악회, 회원 배가 운동, 등은 우리 공동의 비전이고,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질 미래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조항은, 신용남을 위한 선전이 아니라, 미주총동창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종우 (사대 51, 교육학 박사)

조지아 2017 정기총회 및 신년잔치

지난 2월 5일, 애틀랜타 인근 Duluth 시의 격조 있는 슈가로프 컨트리 클럽하우스에서, 조지아지부 동창회의 정기총회 및 신년잔치가 8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조지아 지부 최초로 동문 개개인의 사진이 함께 실리는 주소록 책자 제작을 위하여 이날 일일 사진사로 활약한 총무 이일순 동문(경영 82)의 카메라 플래쉬에 맞춰 동문 본인과 부부사진에 열심히 포즈를 취한 후 총회장에 임정한 동문들은, 송년회 후 새해에 만난 반가운 인사들을 나누었습니다.

신임 부회장이던 공영식(사대 79)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지난 2년간 조지아 지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던 강창석(의대 73) 전임회장은 신임 허지영(문리 66, 사진)회장에게 동창회기 이양한 후 이어진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 조지아지부 동창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잘 한 일이 허지영 신임회장을 선출한 것”이라고 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와 기대에 찬 웃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허지영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조지아지부 동창회 발족 28년의 공로를 역대 회장들과 임원들의 끊임없는 봉사과 회생의 덕분으로 돌렸으며,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기존에 있던 봄, 가을 आय�회와 송년회등 정기콘서트 이외에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동문 골프대회, 세미나 프로그램, 동문 주소록 소책자 신규제작등 동창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각종 신사업 계획들을 발표하여, 동문들이 동창회의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이 날, 28년전 최초로 조지아지부 동창회를 창시하셨고 오랜 세월을 동창회를 위하여 성원하시고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어 오신 김용건(문리 48)박사님과, 지

난 2년간 열심히 봉사하신 강창석 전임회장께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러 선배 회장단과 임원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갈 신임 임원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허지영 신임회장의 부군인 주중광 (약대 60) 동문이 세미나를 담당하기로 하여, 비선 실세 아니냐는 부러움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조지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오신 분들과 오랜만에 동창회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동문을 한분 한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특히 조지아 지부 동창회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미주총동창회 손재욱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격려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2016년 결산보고와 2017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이영진 (공대 76)신임 재무

의 재직있는 진행과 호소력 있는 요청으로, 즉석에서 20명이 넘는 동문이 \$9,000에 달하는 후원금을 약정하여 동창회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회장단과 임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명소인 슈가로프 컨트리 클럽하우스에서 준비한 풍성한 만찬을 나누는 화기에 애환 분위기 가운데, 과거 동문회의 행사등에서 촬영된 사진들과 비디오를 보면서 동문들이 따뜻한 덕담들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고, 만찬 후 이어진 게스트의 색소폰 연주와 CPA 이상엽(공대 85)동문의 세무정보에 대한 강의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동문 골프대회와 봄 आय�회를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글: 총무 이일순(경영 82)

뉴욕 약대동창회 동문의 밤



약대 뉴욕동창회(회장 손진태 67학번, 이사장 김창수 64)의 '2017 신년축하 동문의 밤'이 2월 25일 뉴욕 플라시스의 대동연회장에서 있었다.

금영천 (72) 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송재한(61)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손진태 회장 인사말과 정인식(상대58) 뉴욕골든클럽회장의 축사와 윤정옥(50) 동문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진구(농대 60) 전 미주동창회장의 하모니가 축하 연주 후, 김문경 (61), 이대연 (65) 동문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특별히 손갑수(59) 동문이 마련한 해외 여행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어 같이 여행한 동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70여명이 참석한 약대 뉴욕 동문의 밤에는 이진구, 정인식 동문 이외에도 김도명 뉴욕지역 동창회장과 손경택 뉴욕 골든클럽 부회장, 뉴욕

한인약사회 임원진(조명하, 최윤선, 김수지)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이 날의 행사를 축하했다.

이 날 손회장은 본국의 약대 동창회에 남편과 본인의 이름 첫자를 따서 '상운'이라는 장학회를 만든 고윤숙 (65)동문을 소개하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이 모교와 동창회에 관심을 갖기를 권하였다. 단체사진 촬영 후 박양명과 그 약단의 사회와 연주로 시작된 유희시간에는 김혜숙 (67) 동문 부부가 리드한 소셜 댄스, 오상호 색소폰 연주, 박양명 약단의 연주와 노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약대 동창회는 격월로 진행되는 이사회 모임과 매년 시행해오는 해외 단체 여행을 통해 친목과 단합이 잘 되는 모범 단과대학 동창회이다.

글 허유선(가정 83) 사진 손갑수 (약대 59)

휴스턴 동창회 장학생 모집

텍사스 남부지역 거주 2017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 특출한 학생
 - ◆이진현 Scholarship: 특별활동과 가장상황 참가
 - ◆HOUSTON진수회(조선해양공학학동창회): 학업성적이 우수한 Science 혹은 Engineering전공예정학생
 - ◆이호성 Academic Scholarship: Engineering 혹은 Bio-Science전공예정학생
 - ◆최인섭 Scholarship: 신체/정신 장애자 또는 그 자녀

텍사스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2017년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세부적인 선발분야는 총 10개 분야로 다음과 같다:

- ◆김동수 진기주 Academic Scholarship: 학교성적 최상위대상자, PSAT, SAT 또는 ACT성적우수학생
- ◆조시호 Leadership Scholarship: 학회회장 및 임원, 학교클럽 또는 신문 Editor 등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 등에 밝힌 학생
- ◆유정자 Music/ Fine Arts Scholarship: 음악, 미술에 뛰어나거나 특별성 받은 학생
- ◆임성주 Memorial Scholarship-영어분야에 특출한 학생
- ◆Anacon Scholarship: RICE 또는 U of Houston 진학예정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과외활동이

지원자는 SAT점수가 포함된 고교 4년간의 성적증명서, 진학 예정 대학교가 명시된 증명서류, 신청자에게 경비를 준 책이나 산문(Topic- "Tell us about a book or an article that has inspired you")을 소개하는 에세이와 신청서(연락처, E-mail, 전화 등 표기)를 오는 3월 31일까지 휴스턴 서울대학교 동창회 장학회(15903 Eldora Springs Ct., Houston, TX 77070) 전화 832-3112-6569 또는 이메일 scholarship@snuhouston.org으로 하면 된다.

한편 향후 선발된 장학생은 휴스턴 서울대 동창회에서 개인 통보와 함께 신문 지면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에스티유니타스 윤성혁 동문, 美 '프린스턴 리뷰' 인수



스카이에듀 등 60여개 교육 브랜드를 보유한 한국의 교육전문기업 '에스티유니타스' (http://www.stunits.com 대표: 윤성혁(공대 99))가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표 교육기업으로 꼽히는 '프린스턴 리뷰'(the Princeton Review)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프린스턴 리뷰는 지난 1981년 설립 이래 약 35년간 SAT·ACT 등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입시 준비시험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미 교육기업 중 가장 높아 '미국 교육의 자존심'이라 불리고 있다. 특히 전 세계20개국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매년 150만명 이상의 수험생을 미국 명문대 등에 진학시킬 정도로 교육분야에 있어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인프라를 자랑한다.

양사는 기자회견에서 에스티유니타스가 프린스턴 리뷰 경영권을 100% 인수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번 프린스턴 리뷰 인수를 기점으로 미국 교육시장에도 진출한다. 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는 "현재 미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점점 높고 있고, 최근 5년간 미국 온라인 교육 시장이 다섯 배 성장하는 등 최적의 진출 환경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세계 교육의 롤모



'시애틀 시니어 포럼' 경제 전망

서울시립대 최경욱 교수가 지난 11일 뉴캐슬도서관에서 열린 SNU포럼(회장 김재훈(공대 72))을 통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경기전망과 환율 등을 시연하게 전망해 관심을 모았다. 방학을 맞아 가족이 살고 있는 시애틀에 온 최 교수는 이날 '2017 한국 및 세계 경제, 환율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트럼프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더욱 불확실해진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냈다. 경제 전망은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최 교수는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답게 각종 통계와 지표 등을 근거로 전망과 분석을 내놓았다.

우선 시애틀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는 트럼프 정책이 잘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2년 정도는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인데 향후

'스누버' 안에 '우버' 있다?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인 '스누버(SNUver)' 명칭을 두고 서울대와 미국의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UBER)가 법적 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서울대는 "다국적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박한다.

는 명칭"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스누버 개발을 담당한 서승우 교수(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는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공동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누버 이름을 두고 우버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스누버는 2015년 11월 서울대에서 처음 공개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 스누버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는 출원심사를 끝낸 뒤 이의신청을 받는 출원 공고가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1월에는 스누버2를 공개했다.

우버는 서울대가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지난해 7월 서울대에 내용증명을 보내 "스누버 및 스누버2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며 "UBER"가 포함된 모든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같은 달 18일 "SNUber"란 영문명은 2016년부터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없

서 교수는 "스누버는 서울대 약자(SNU)와 드라이버(driver·운전자)를 합성한 단어"라며 "2015년 스누버를 선보였을 때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는 스누버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나 언론에서 SNUber라는 철자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공식 용어는 SNUver"라고 설명했다. 우버가 지적하는 알파벳 'b' 대신 'v'를 쓴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버는 지난달 25일 서울대에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다. 우버는 이번에 영문명을 포함해 한글로 표기된 '스누버'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우버 법률대리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미 'SNUber'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음에도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한글명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며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보면 스누버와 우버라는 상표 사이 유사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환율은 1,140~1,16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부채가 너무 큰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현재 부채문제가 성장 잠재력까지 제약하는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미 부동산 버블을 넘어선 상태"라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릴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중국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인만큼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UC버클리 한국문학 번역워크샵 김경옥 동문 작품 강연회

16일 UC버클리한국학센터에서 열린 김경옥(인문대 90) 소설가 작품 강연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머와 재치로 사물의 숨겨진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는 김경옥 소설가의 작품세계가 16일 UC버클리에서 조명됐다.

이날 2009년 동인문학상 수상작인 ‘위험한 독서’ 단편을 김경옥 소설가와 브루스 폴턴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교수가 한국어와 영어로 낭독한 후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인과의 소통을 꿈꾸는 현대 지식인의 고독한 내면 풍경을 밀도있게 표현한 이 작품을 통해 소설의 극적인 힘과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묘한 감동을 전했다.

권영민 UC버클리 한국문학 초빙교수는 “80년대 작가들과 달리 김경옥 소설가는 심각한 주제도 가볍게 다룬다”면서 “21세기 문학에 더 많이 요구되는 장점들을 김작가가 갖고 있다”고 평했다.

권 교수는 “해외에 김 작가의 작품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초청했다”면서 “서울대 국문과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경년(이대) 전 UC버클리 교수, 김희봉(공대 68) 버클리문학회장, 권영민(문리 67) UC버클리 한국문학 초빙교수, 김경옥(인문대 90) 소설가, 브루스 폴턴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교수, 로라 벨슨 UC버클리한국학센터 소장)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UC버클리 학생들이 참여한 3일간 번역작업을 통해 김 작가의 작품이 미국 출판사와 저널에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UC버클리한국학센터는 2015년 조경란, 2016년 이시영, 김승희 작가를 초청해 그들의 작품을 번역, 한국문학 세계화의 길을 열고 있다. 권 교수는 “현재 서울대 한국문학 전공 석박사과정자 중 40%가 외국인”이라면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김 작가 소설 번역작업에 참여한 세스 쉐들러 서울대

국문과 석사과정생과 줄리 리(이소영) UC버클리 학생(영문과)도 “신세대 감각이 돋보이는 김경옥 작가의 작품 번역작업에 참여해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접했다”면서 “한국문학작품 번역가로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학적 엄숙주의를 뒤집는 풍부한 상상력과 독특한 언어 구성력, 통찰력으로 주목받아온 김경옥 소설가는 2015년 미국 Dalkey Archive Press에서 영문판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God has no Children)’를 출간한 바 있다.

이근민 동문 ‘침묵의 시’ 전시회에 초대



되며 오프닝 리셉션은 17일 오후 6~8시에 열린다.

이 동문의 작품은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화가 프랑수아 부세,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 후기인상파 화가 앙리 마티스, 관능적 여성 이미지와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한 오스트리아의 구스타프 클림트 등 10명의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다.

이근민 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자신의 병에 대한 작업을 그림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우울증, 불면증, 근육통과 같이 우리가 늘 가까이하고 있는 질병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림 우로부터: Cezanne- L’education d’Achille ca 1864-5, Marisol Untitled 1957, Matisse- Seated Bal-lerina 1925, 이근민- Refining Haalucinations 2007)



뉴욕 이상은 동문 ‘라보엠’ 열연

뉴욕의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이상은(음대 95) 동문이 올 봄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미미로 오페라 산호세에 데뷔한다.

이상은 동문이 지난해

이 오페라단의 루치아 공연에서 타이틀 롤을 맡아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올 4월 비엔나의 여주인공 미미로 산호세 오페라의 라보엠 무대에 선다.

이에 앞서 올 3월엔 샌프란시스코에서 독창회를 여는 등 올 한해도 바쁜 연주생활을 이어간다.

미 오페라계의 유명주로서 ‘높은 옥타브에서 낮은 옥타

브까지 소화해내는 플로라투라 소프라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상은 동문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오페라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메네스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맨하탄 음대에서 전문연주자 과정을 각각 마친 그녀는 2007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내셔널 카운실 콩쿠르 미동부지역 3등을 차지했고 내셔널 오페라 어소시에이션 콩쿠르, 올가 쿠세비츠키 콩쿠르, 케네디컷 오페라 길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사진:오페라 산호세의 루치아에서 타이틀롤을 맡았던 이상은(사진 Pat Kirk))

강신용 동문 수필집 ‘3초의 미학’ 출간

남가주 강신용(사대 73, 남가주동창회 차기회장) 동문이 그동안 한국일보 등을 통해 기고한 글 60여개를 모아 ‘3초의 미학’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했다.

‘3초의 미학’으로 수필집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3초라는 한 순간에 생명이 달렸으며 3초면 서로간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 둘 셋’ 멈추고 둘러보자는 그의 인성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즉 똑같은 3초라도 따뜻한 마음속에서는 귀하고 아름답지만 노도처럼 화급한 분노속에서는 무섭고 괴로운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야기 -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가>

❖ **도광양희의 삶이 시작되었다.**
1982년 어느날 초코렛 하나 물고 웬 종일 하와이 바닷가를 뛰었다. 저녁 놀빛아래 오기로 젖어버린 물결이 햇볕에 그을린채 내버려졌다. 와이키키 해변을 가득채운 관광객들 속에 절저히 혼자 버려졌다. 햇볕에 반짝이는 파도만도 못한 재능을 믿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자포자기한 영혼이 찾아 숨은 곳은 미국 군대였다. 조용히 인내하고 힘을 기르다는 도광양희의 군대시절이 하와이 해변에서 일태했다

❖ **미국나이가 한살이다.**
힘찬 근가속에 하루를 열고 취침점호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밀바닥에서부터 미국을 배웠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지만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 웨스턴화되었다. 그 지난 학력, 경력 모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한국나이는 모두 지워버렸다.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말 배우는 아이처럼 모르면 묻고 가르치는데로 배우며 미국 생활은 일취월장 석류처럼 열글어갔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군대에서 먹은 나이에 햄버거맛이 배어있다.

❖ **꿈과 희망의 씨앗이 가슴에서 자란다.**
어두운 굴속에서 쌓아온 내용이 드디어 출발선에 서보는 것이다. 남들이 다하는 이민자의 고생을 다르긴해도 군대에서 한 것이다. 5년내내 밤마다 UMC 대학을 다니며 워킹업을 했다. SNU 졸업장만큼 자랑스런 은근과 끈기로 탄 BS학위다.

군문을 나서며 CPA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정했다. 체력, 재력 그리고 불타는 의지가 있었다. No Job, No Family 그리고 오직 열공을 위해 가족의 눈물이 있었다. 행운의 여신은 가족의 바램과 의뢰로 영혼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지금도 CPA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



❖ **일습삼찬의 소박한 자유인이 되었다**
“사람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도쿠가와는 말한다. 멀리 가려면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인내(忍耐)하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원하던 원치않던 길은 외길 한길을 가고 있다. 태생이 농군의 아들이라 흙수저를 물었으니 작은 일에도 쉽게 감사하는 버릇이 생겼다. 조금만 높아 보여도 미군에서 같고 닦은 “YES, SIR” “YES, MA’AM”이 입에 붙었다. 웬만하면 참을 인(忍)자 마음에 칼을 얹고 넘기는데 익숙하다. 일습삼찬의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한평 잠자리에 감사하는 소박한 자유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자유인이다.

❖ **행복의 나이에 다달았다**
“한국철학의 아버지” 김형석 교수는 행복한 인생은 60에서 75세라고 한다. 30여년 테니스로 다져진 신체적 건강, 15년이상 읽는 마음, 쓰는 마음으로 무장한 정신적 건강, 밤벌이는 할 만한 일하는 건강을 밀천으로 희망과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살고 있다. 이제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の 끝자락은 자연이라 했으니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부의 피가 심장에서 느껴진다. 행복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꽃향을 기다린다.

❖ **끝으로 고마운 얼굴들을 떠올린다**
등따시고 배부르게 먹거리를 도와주신 수많은 고객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끌 어주고 밀어주시는 SNU& SD동문들과 남가주 언론계 기자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단의 가장자리에 서있어도 따뜻하게 잡아주신 김영중, 조만연 그리고 이정아 수필가님과 그 외 많은 선배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모아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수필미학” 편집인, 신재기 교수님께 많은 빛을 쬐습니다.

끝으로, 일습삼찬의 겸소한 생활로 재력을 키워준 다이아나 강, 내자와 혼자서도 잘 커준 딸 JANET 강 그리고 박사길에 들어선 아들 강신용 JR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오늘이 있기까지 30년 전 CPA준비로 가족의 희생을 강요한 못난 가장을 믿고 따라준 식솔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세상에 알린다. 이것으로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은 아름다운 3초속에 빨려든다.

피 한방울로 10분만에 말라리아 진단

피 한방울로 말라리아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동문들에 의해 열렸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노을’ 공동대표 임찬양 (공대 01)·이동영 (공대 01)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 ‘AID-MAT’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임 대표는 “이 키트는 당뇨 환자가 채혈하듯 손끝에서 피 한 방울을 뽑아 모바일 디지털 현미경에 넣으면 자동으로 진단을 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팀”이라며 “과거 현미경 진단법은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1시간 정도 걸린다면, 우리가 개발한 키트는 10~20분이면 진단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오는 9월부터 캄보디아, 내년 초에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임상시험을 할 계획이며 빠르면 2017년부터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고 많은 피를 뽑아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노을이 개발한 진단 키트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노을은 이 기술을 앞세워 미국의 글로벌 인큐베이터 1776의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1776 웰빙지킴’에 한국을 대표해 출진했고, 지난 6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과학기술혁신 포럼’에서 ‘주목할 만한 15개의 이노베이터’로 선정됐다. 앞서 정부 무상원조 전달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해 말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CTS)’ 1기 팀으로 노을을 선정했다. 총 3억 원을 편성했고, 시제품 완성 을 도왔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배우 김성찬이 1999년 KBS ‘도전 지구탐험대’ 촬영차 라오스 오지를 방문했다가 이 병에 감염돼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 심각성이 국내에도 알려졌다. 2015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만~7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하며, 이 가운데 90%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다. 치사율을 줄이려면 예방약을 복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확한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말라리아 진단은 현미경으로 진행됐다. 의심되면 피를 뽑아 현미경으로 말라리아 원충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진단법은 전문 인력을 요구

KOICA 관계자는 “노을의 진단 키트는 말라리아 퇴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CTS 프로그램에 론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을은 피 한 방울로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결핵, 빈혈 등도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바이오 메디컬 연구원이었던 이동영 대표는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현지의 심각한 질병 문제를 파악한 것이다. 치사율을 줄이려면 예방약을 복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

이 대표는 “감염 질환이 퇴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쉽고,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진단 키트를 현지 피를 뽑아 현미경으로 말라리아 원충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진단법은 전문 인력을 요구

박소영 동문 LA 오페라 ‘후궁탈출’ 열연

소프라노 박소영(음대 05) 동문이 하녀 불론데로 출연하는 LA오페라 ‘후궁탈출’(The Abduction from the Seraglio)이 지난 주말 도로시 쉐들러 파빌리언에서 개막했다.

전 3막의 독일 징슈필(노래극)인 ‘후궁 탈출’은 1781년 빈에 정착한 모차르트가 빈 극장에서 최초로 성공을 거둔 오페라다. 터키의 하렘(후궁)을 소재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독일인 오페라로 노래 중간에 연극처럼 대사가 등장하는 형식이다. 당시 유행했던 터키 스타일로 무대를 꾸며 관심을 끌었고 이국적인 타악기와 플루트보다 높은 음을 내기 위한 목관악기인 피콜로를 도입해 서곡에 자주 활용했다.

‘후궁의 탈출’은 음악사적으로 유명한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의 이름을 그대로 딴 벨몬테의 여자친구 콘스탄체와 하녀이자 친구인 불론데, 스페인에서 온 젊은 귀족 벨몬테, 하렘의 관리자 오스민, 터키의 파사(주지사) 셀림 등이 꾸미는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징슈필로 꼽힌다. 희극적인 요소가 많은 반면에 소프라노 가수에게 고문에 가까운 고난도 플로라투라 기교 고음을 요구하는 아리아와 남자 주인공에게도 어려운 아리아가 많다. 박 동문은 LA 오페라의 도밍고-플렌-스타인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출신이다. 모교 음대

를 수석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콘저바토리에 서 석사학위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았다. 루시니의 오페라 ‘라 가제타’의 리제타 역,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리골레토’의 질다, ‘요술피리’의 밤의 여왕,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아모레 역을 노래했다. 이 중 ‘요술피리’ 밤의 여왕은 아스펜 음악제(2012)와 보스턴 리릭 오페라(2013)에서 공연했다. 카네기 홀에서 열린 포르테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스펜 음악제에서 소프라노 솔로이스트로 베토벤의 ‘에그몬트’를 공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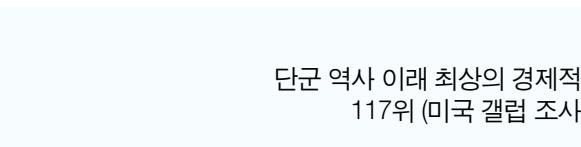
LA오페라 2015-16시즌 ‘미술피리’에서 밤의 여왕으로 출연해 화려한 기교와 고난도의 고음을 훌륭하게 소화한 플로라투라 소프라노로 ‘후궁 탈출’에서는 희극적인 인물들 연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박소영과 모리스 로빈슨이 노래



하는 하녀 불론데와 하렘의 관리자 오스민의 두 옛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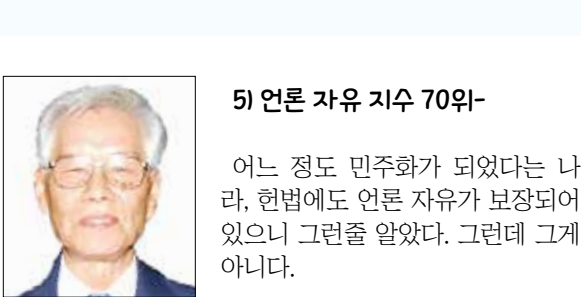
제임스 콘론이 지휘한 LA오페라의 ‘후궁 탈출’은 오는 4일, 8일, 16일 오후 7시30분과 12일, 19일 공연한다. www.laopera.org

선진 한국 - 부끄러운 민낯 (하)



단군 역사 이래 최상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오늘의 한국,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質) 만족도는 조사 대상 145개 국 중 117위(미국 갤럽 조사 '2014 세계 웰빙 지수'), 내전 중인 이라크나 남수단 보다도 낮은 세계 최 하위 수준이다.

그 이유/원인에는, 첫째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 사는 환경 즉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그 원인이 있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비추어 한국의 세계속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왜 선진국 진입을 못하고 그 문턱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지,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 몇 가지를 세계 우수 연구/조사 기관 통계를 바탕으로 두 번에 걸쳐 들추어 보기로 한다.



5) 언론 자유 지수 70위-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다는 나라, 헌법에도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런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장동만(문리 55) 국제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16 세계 언론 자유 지수 (Press Freedom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70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를 기록한 데 이어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 랭킹은 노무현 대통령 재직 때인 지난 2006년 31위, 반대로 가장 낮은 랭킹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9년 69위였다.

해외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줄 알았던 한국 언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점수를 받았는가? ‘국경없는기자회’는 “박근혜 정부와 언론은 매우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이미 양극화 된 미디어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 삶 만족도 지수 25위-
OECD가 2014년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으로,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이는 평균 6.6점에 못 미치는 점수인데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 나은 삶 지수’는 OECD가 2011년 부터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 별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다. 항목별로 0~10점까지 점수를 준다.

‘삶의 만족도’와 함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수인 ‘일과 삶의 균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문에서 한국은 4.2점을 받아 34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무너진 나라는 멕시코와 터키 뿐이었다.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 지수는 최하위인 36위를 차지했다.

전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오스트레일리아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뒤를 이었다. <허핑톤 코리아, 2014년 7월 자>

삶의 질도 열악했다. 미세 먼지 농도가 ㎥당 30.3㎍(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평균(20.1㎍)보다 훨씬 높았다. 이렇다 보니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7%로 OECD 평균(69%)의 절반 정도였다. 환경 부문에서 30위, 건강 부문에서 31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이유다. 한국인이 봉사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1분으로 OECD 평균(4분)에 한참 못 미쳤다. 이런 수치를 반영한 공동체 부문의 순위는 34위였다.

❖ 일과 삶의 균형도 최 하위권 (34위)을 벗어나지 못

했다. 한국 남성이 하루에 청소나 요리와 같은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은 불과 45분이었다. OECD 회원국 남성들은 평균 141분을 할애해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일하는 시간 (연 평균 2090시간)이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긴 탓도 있다.

❖ 이외에 주택 부문은 20위, 소득은 23위, 고용은 14위, 교육은 4위, 시민 참여는 3위, 삶의 만족은 25위를 기록했다.(JTBC 보도 참조)

7) 노인 복지 지수 50 위-
영국의 국제 노인 인권 단체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은 2014년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2014년 세계 노인 복지 지표’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세계 96개 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소득·건강·여락·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의 13개 지표로 측정한 결과다. 놀랍게도 이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는 93.4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스웨덴·스위스·캐나다·독일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50.4점으로 5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순위 (67위·총 91개국)에 비해 17계단 상승한 결과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 9위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36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 (44위), 베트남 (45위), 중국(48위), 카자흐스탄 (49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KHT 건강 시대, 2014/11/18>

한편, 2015년 한국 보건 연구원의 ‘복지 종합 지수의 국제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복지 종합 지수는 20위였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노인 복지 지출 비중 또한 OECD 회원국 중 끝에서 두 번째에 불과했다.

8) 자살 하루 40 명, OECD 1위-
2016년 2월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1년째 부동의 1위다. OECD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1990년만 해도 8.8명으로 일본(17.5명), 미국(13.1명)보다 적었고, OECD 평균 (16.2명)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2003년 28.1명으로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1위로 올라선 뒤 선두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세계일보, 2016/02/02>

2015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만 4천 427명으로 1년 전보다 267명(1.9%) 늘었다. 하루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률도 28.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1.5%) 증가했다. 자살 사망률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6.0명(26.5%) 늘어났다. 2003년 22.6명이었던 자살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31.0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2012년 28.1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중앙일보 NY관, 2016년 7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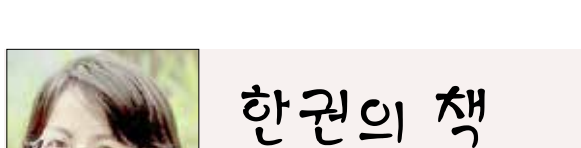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
1. 자살률 - 1위
2. 산업재해 사망률 - 1위

3. 가계부채 - 1위
4. 남녀 임금격차 - 1위
5. 노인 빈곤률 - 1위
6. 청소년 흡연율 - 1위
7. 성인 흡연률 - 1위
8. 가장 낮은 최저임금 - 1위
9. 저임금 노동자 비율 - 1위
10. 자동차 접촉 사고율 - 1위
11. 인도에서 교통사고율 - 1위
12. 보행자 교통사망률 - 1위
13.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 1위
14. 노인 교통사고 비율 - 1위
15.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국가 - 1위
16. 학업시간 가장 높은 순위 - 1위
17. 환경평가 뒤에서 - 1위
18. 어린이 행복지수 낮은 순위 - 1위
19. 청소년 행복지수 낮은 순위 - 1위
20. 이혼 증가율 - 1위

21. 결핵 환자 발생률 - 1위
22. 결핵 환자 사망률 - 1위
23. 당뇨 사망률 - 1위
24. 남성 간질환 사망률 - 1위
25. 대장암 사망률 증가율 - 1위
26. 심근경색 사망률 - 1위
27.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 1위
28. 노령화 지수 - 1위
29. 국가채무 증가율 - 1위
30. 자살 증가율 - 1위
31.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 - 1위
32. 실업률 증가율 - 1위
33. 대학교육 가계부담 - 1위
34. 낙태율 - 1위
35. 과학 흥미도 뒤에서 - 1위
36. 중년여성 사망률 - 1위
37. 사교육비 지출 - 1위
38. 15세 이상 술 소비량 - 1위
39. 독주 소비량 - 1위
40. 출산률 제일 낮은 국가 - 1위
41. 근무시간 많은 국가 - 1위
42. 세무담 증가속도 빠른 국가 - 1위
43. 국가부채 증가속도 - 1위
44. 식품 물가 증가율 - 1위
45. 양주 소비율 - 1위
46. 저출산 - 1위
47. 공교육비 민간 부담 - 1위
48. 사회안전망 가장 안 좋은 순위 - 1위
49. 정치적 비전이 안 좋은 순위 - 1위
50. 고등교육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율 뒤에서 - 1위

억, 5관 왕도 아니고 50 관왕..!?
<p>은메달 7개</p> 1. 상 하위 소득 격차 심한 순위 - 2위 2. 국공립대 등록금 가격 비싼 순위 - 2위 3. GDP 대비 공교육비 - 2위 4. 등록금 가격 비싼 순위 - 2위 5. 여가 순위 뒤에서 - 2위 6. 성 범죄 발생국 - 2위 7. 소등 불평등 순위 - 2위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50529000342830



한권의 책

겨울방학이다. 지난 반년 동안 방치해둔 번역원고 파일을 연다. 겨울에 잘 어울리는 소설, 파스테르나크(1890-1960)의 ‘닥터 지바고’(1957: 이하 ‘지바고’)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야 마뜩치 않은 구석이 많지만 독자의 눈으로 보면 역시 20세기 러시아, 즉 소련 소설 중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작품이다.

‘지바고’는 시대적으로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 두 혁명(1917년 2월 멘세비키 혁명, 10월 볼셰비키 혁명)과 내란, 부분적으로 양자 세계 대전을 아우른다. 이 보편의 역사와 맞물려 유라, 토냐, 라라, 파샤 등 주인공들의 삶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의사가 된 유라, 즉 유리 지바고는 많은 시간을 시를 쓰는 데 할애한다. 그의 삶을 침범한 역사적 사건에는 대체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 사생활 역시 그러하데 아내(토냐)를 사랑함에도 ‘빨간 마가목 열매’, 즉 라라를 그리워한다. 역사와 사랑의 딜레마 앞에 선 그는 스스로를 ‘험릿’, 정확히 험릿 역을 맡은 연극배우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편, 라라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숭배해온 파사(안치포프-스트렐니코프)와 결혼하지만 혁명과 내전 중에 거둬든 해후를 통해 지바고와 비극적인 사랑의 인연을 맺게 된다.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파사의 운명은 더 절절하다. 구시대의 악을 적절하기 위해 그토록 사랑한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혁명에 뛰어들든 그는 이후 토사구팽의 논리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그의 자살, 특히 바르키노의 하얀 눈밭을 물들인 붉은 피는 혁명(이상)과 정치(현실)의 양립불가능성을 시적으로 보여준다. 하나같이 선과 미의 육화인 ‘젊은 그들’ 열을 땀도는 ‘늙은’ 변호사 코마로프스키는 봉건제의 악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악역이 아니다.

모스크바의 유대계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파스테르나크는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겐치아의 전형이자, 소설가가 아닌 시인이었다. 무엇보다도 타고난 귀족적 성품상 소련이 요구한 과격한 이분법적 세계관과는 잘 맞지 않았다. 동반자 작가인 그가 스탈린의 저 악명 높은 숙청을 면한 것은 ‘조용한 광기’, 아니 ‘광기의 조용함’ 덕분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지바고’가 소련도 아닌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간되어 이듬해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 냉전시대의 역학관계에 힘입어 물의를 일으킨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이 소설은 어쨌거나 문학사의 심판을 거쳐 살아남았다.

1988년을 전후한 언젠가, 두 동생이 잠든 늦은 밤에 ‘지바고’를 읽었다. 애지중지한 빨간색 라디오에 서는 데이비드 린의 영화 ‘지바고’(1965)에 삽입된 ‘라라의 테마’가 흘러나왔으리라. 지바고와 라라의 피난처처럼 쥐가 들끓는 단칸방에서 이런 소설을 읽는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참을 수 없이 문학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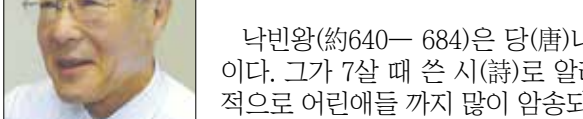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 ‘내적 망명’에 처해진 시인이 쓴 소설을 무명의 아줌마 소설가가 번역하고 있는 이 정황 역시 그렇지 않은가. 그러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파스테르나크의 자화상

파스테르나크의 자화상



낙빈왕(駱賓王) 이야기



金東權(공대 60)

金東權(공대 60)

金東權(공대 60)

詠鵲 (영어: 거위의 노래)

鵲 鵲 鵲 (아아아: 애 애 애 거위 소리.)
曲 項 向 天 歌 (곡정향천가: 굽은 목 하늘을 향해 노래한다.)
白 毛 浮 綠 水 (백모부록수: 흰 깃털 푸른물 위에 떠돌며,)
紅 掌 撥 清 波 (홍장발청파: 빨간 발 청파를 휘젓네.)

金東權(공대 60)

金東權(공대 60)

註: 아(鵲)는 천아(天鵲)라고도 하며 동양의 백조, 고니를 가르킴과 동시에 鵲鵲鵲로써 그의 울음소리를 묘사하고 있음.

시인의 동심(童心)은 맑고 아름답고 생동력(生動力)있는 世上을 관찰(觀察)하고 인지(認知)하고 있음이 보인다.

그 후 그는 많은 시를 남겼고 詠鵲의 반추(反誦)인지 영(詠)을 시제(詩題)로 한 시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영회고의상배시랑(詠懷古意上裴侍郞), 영미인재천진교(詠美人在天津橋), 거울의 노래(詠鏡), 물의 노래(詠水), 기러기를 읊음(詠雁), 눈의 노래(詠雪),운주의 노래(詠雲霧), 가을아침 치천의 모사마 를 위한 9수의 노래(秋晨同淄川毛司馬秋九詠), 가을바람의 노래(詠秋風), 가을구름 노래(詠秋雲), 가을매미의 노래(詠秋蟬), 가을이슬의 노래(詠秋露), 가을달의 노래(詠秋月), 詠秋水, 가을반딧불의 노래(詠秋螢.) 가을국화의 노래(詠秋菊),가을기러기 노래(詠秋雁) 등이다.

金東權(공대 60)
<p>그러나 성인(成人)되었서의 현실은 그의 재능(才能)에 비해 인색(吝嗇)하였으며 제대로 된 벼슬은 한번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직(剛直)한 상소(上疏)를 여러 차례 올렸다가 좌천(左遷)되거나 감옥(監獄) 신세(身世)가 되었다 .</p>

그의 감옥 신세를 가을을 맞는 매미에 비유해 詠蟬을 읊으니. 여름동안 이슬만 먹고 사는 청렴한 매미, 비록 그의 소리는 귀에 거슬리지만 조금도 사악함이 없는 부르짖음이다.

詠蟬 (영선: 매미를 노래함)
西陸蟬聲鳴 (서육선성성창: 가을 매미 우는 소리.) <p>南寇客思侵 (남관객사침: 남쪽 신세의 나그네 생각이 깊어지네.) 那堪玄鬣影 (나감현비영: 어찌 견딜까? 아직 젊은 사람이,) 來對白頭吟(내대 백두음: 이에 대해 백두음 시를 읊네.) 露重飛難進(로중비난진: 이슬이 질어 날아가기 힘들고,) 風多響易沈(풍서향이침: 바람이 심해 소리조차 가라 앉네.) 無人信高潔(무인신고결: 내 깨끗함을 믿는 사람은 없으니.) 誰爲表予心(수위표여심: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p>

註:
西陸: 태양궤도(黃道)의 한 계절로 가을을 말함
南寇: 초(楚)나라때 죄수가 쓰던 모자
白頭吟: 무고(無辜)를 당한 억울함을 노래한 악부(樂府:漢나라때 수집 한 詩 모음)中的 詩
또 詠鵲에 대조(對照)되는 시가 있어 소개하면,

詠塵 (영진: 먼지의 노래)
淩波起羅襪 (능파기라말: 비단 버선 발 걸음을 따라 파도가 일어나서,)
含風染素衣 (함풍염소의: 바람을 머금고 흰 옷을 물들이네.)
別有知音調 (별유지음조: 특별이知音을 이야기 할만한 음률이 있는 것일까?)
聞歌應自飛 (문가응자비: 노래듣고 응답하듯 스스로 날아드네.)

註:
知音은 유백아(俞伯牙)의 거문고 소리의 참 뜻을 중자기(鍾子期)만이 알아 들었다는 고산유수(高山流水)의 고사(故事)를 말하는 것임.가면 갈수록 옷을 더럽히는 먼지, 불청객이지만 마치知音인양 따라다니는 뜻.

낙빈왕은 결국은 출세에 뜻을 접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경업(李敬業 徐敬業이라 고도함)을 도와서 반(反) 축천무후(武則天) 거병(舉兵)에 가담하여 격문(檄文)을 쓴 것으로 유명하여 진다. 거병(舉兵)은 실패하고 또 이로 인(因)해 그는 은신(隱身)해야 했고, 그의 최후(最後)의 종적(蹤跡)은 지금 까지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Acropolis 人文叢策 漢詩擔當



<특집>

한국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담



이석호 (공대 66)

내 조국 한국에 대한 경험

이것은 한국에서 겪었던 일은 아니나 우리의 조국 한국이란 나라를 잘 말해 주는 사건이라 생각된다.

몇 년 전 연말에 서울의 어느 은행에 강도가 들었을 때 광경이 감시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이것을 미국 CNN 뉴스에서 입수해서 방영하면서 뉴스진행자가 “강도가 당면 절대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다. 그 감시카메라에 찍힌 광경은 다음과 같았다.

은행이 문을 닫을 때가 되어 사면이 어두운데 직원들이 다들 퇴근하고 곳발이 제일 낮은 아가씨 둘만 남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던 때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후닥닥 카운터에 있는 돈을 움켜쥐려고 했던 모양이고 볼란 아가씨들이 소리를 치면서 핸드백으로 보이는 것으로 강도를 계속 내리치는 것이었다. 강도는 머리를 숙여 날아오는 핸드백을 피하면서 무어라고 험박을 하다가 못 견디고 도망치고 말았다.

물론 나는 그 뉴스진행자의 코멘트에 100% 찬성하긴 하지만 이것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말해 주는 두 가지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는 좋은 면, 하나는 나쁜 면인데, 나쁜 면부터 이야기한다. 두 아가씨가 강도가 달라는 대로 순순히 돈을 내주었다면 다음날 그들은 상사로부터 “왜 마음대로 돈을 순순히 내주었느냐, 혹시 강도질을 위장해서 돈을 빼돌린 것이냐” 등등의 추궁을 받았을 것이고 은행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자칫 그 거액의 돈을 물어내든지 아니면 그 액수에 해당하는 무료봉사를 해야 했

을 것이다. 모든 책임을 현장의 말단 직원에게 돌리는 잘못된 한국의 고질적 직장문화가 아가씨들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강도가 돈을 못 가져가게 막은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직장 풍토는 분명히 잘못된 풍토이고 고쳐야 한다. 기업주와 기업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직장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전에 충성을 받을 만한 직장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좋은 면은 무엇일까? 미국 같으면 피차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 사정없이 쏘아 갈것을 것이다. 그 강도를 보니 그 체격이면 아가씨 둘 해치우는 일은 그냥 식사 전 온도 체조 수준이었겠지만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물러간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팔 셋 있는 집은 도둑들도 피해간다”는 말이 다 있을까? 그 아가씨들 역시 옆에 있던 명패나 빗자루등 단단한 무엇을 집어 들어 얼마든지 강도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반격을 가할 수 있었음에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가벼운 핸드백을 사용했다. 어찌면 아가씨들이 핸드백으로 강도를 때리면서 “아저씨가 이 돈 가져가면 우린 쫓겨나오” 하고 사정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인들은 본성이 남을 해치기 싫어하는 착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 감시카메라에 찍혀서 방영되었던 광경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 두 아가씨나 강도나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 바탕에 칠해져 있는 착한 색깔을 들어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현장의 끔찍한 조형물과 섬뜩한 시위구호들에서 내 조국의 문화가 이러한 좋은 면들을 묻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안타까워서 한마디 올리는 것이다.



김정훈(공대 68)

지하철 에피소드

언젠가 한국에 나갈 일이 있었다. 지하철을 타는게 시간도 정확하고, 편리하다는 말을 듣고 표를 사서 목적지로 향했다.

도착 후 내려 개찰구(출구)를 나오려니 회전막대가 돌아가지를 않는다. 앞만해도 안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 표를 슬롯에 넣고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표가 없다, 사연인 즉슨, 탈 때에 그 표를 슬롯에 넣고 다시 나오는 그 표를 가져오지 않은 탓이었다. 역 승무원에게 설명을 하려니, ‘아니, 말뚱하게 생긴 양반이 무임승차러니!’ 하는 표정이다.

다음번 다시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이번엔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왕복표를 끊었다. 셔츠주머니에 돌아올 표를 넣고 한장을 슬롯에 넣고 나오는 녀를 열른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도착 후 출구에서 표 한장을 자연스럽게 슬롯에 넣으니 회전막대가 풀리며 나올 수 있었다.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오려고 한장 남은 표를 슬롯에 넣었는데, 표만 삼켰다 뿐고 회전막대가 쫘떡도 않는다. 아, 이젠 또 무슨 시늬? 역승무원을 찾았다. 그가 표를 체크해보더니, “이보슈, 이진 사용한 표잖아요?” 한다. 아차, 아까 내릴 때 그만이야 돌아올 새 표를 넣고 말았구나! 설명을 해도 ‘아니 말뚱한 양반이 사용한 표를 재탕을 시도하다니?’ 라는 표정이다. 새 표를 한장 구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지니, 돈이 없



는 안양-범계-군포행 버스인 그 차가 처음 정차한 곳이니, 그곳이 안양정류소이려니 하고 눈을 감은 채 차가 다시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기사가 되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범계에 내리셔야 하는데 안 내린 분 계십니까? 보라색 가방 주인 안 계세요? 없으면 차 다시 출발합니다!” 차 안을 둘러보니 다 내리고 혼자 남아 있었다. 벌떡 일어나 차에서 내리니, 덩그러니 서 있는 내 가방과 저만치 부모님의 차가 눈에 들어 왔다. 멀리서 날 알아본 엄마가 달려와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다. “사람들 다 내리는데 뭐 하고 있었냐? 난 네가 또 이 버스로 놓친 줄 알았다.”

다음 날 새벽, 첫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미국 여권을 내밀어 수속을 마치고 한국 땅을 등지고 나오며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라 읊었던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떠올랐다. 그래도 부모님을 뵈고 그 품에서 잠시나마 옛 고향을 느꼈으나, 부모님마저 이 땅에 안 계시는 그 날엔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고 읊조리게 되겠지, 그날이 더디 오기를 기다리며 점점 멀어져가는 고향 땅을 바라보며,

곶이여 버스는 출발했고, 한 시간여가 지나 버스는 한 정류소에 도착했다. 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 말



허순주(가정 83)

1991년 추석 지리산에 갔다. 지리산을 간 이유는 딱 한가지, 미팅처럼 만난 자리에서 희한하게 생긴 한 남자로 부터 “지리산을 안가본 사람과는 대화가 안된다” 라는 말을 듣고나서다. 난 등산에 대해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추석때 신문에 난 산악회 등산 광고를 보고 지리산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등산화는 있니?” 하길래 “이 운동화 신고 갈건데” 했다. 이 친구가 뭐 대단히, 나의 비장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자기가 등산양말과 등산화를 연대얹어는 카페에 맡겨 둘테니 제발 신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 명절날에는 백정의 자손들이나 놀러다니는 거라고, 화내는 아버지의 말씀을 씩 무시하고, 지리산 등산을 갔다.

생면부지의 각각 사연있는 명절날 등산가는 사람들이 모여 버스로 지리산 입구에서 내렸다. 등산갈 때 음식을 잘 준비해서 가야한다는 것을 몰랐다. 난 그냥 매점 같은 곳에서 사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 배낭 사이즈를 보고 사람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정말로 감사히 먹었다.

여자는 나하고 나이 좀 어보이는데 노처녀(?) 언니들이 있었다.

종일 걷고 밤이 되자 산장에서 잠을 잤다. 무서운 산장아저씨는 전원을 받고, 담요를 한장씩 주고 신발을 신은채로 한 사람은 머리, 한 사람은 발, 이렇게 놀게 했다. 여자들만 있는 방이어서 그나마 담요라도 있다고 누가 그랬다.

새벽부터 열심히 산을 올라 천왕봉에 도착하니, 강렬하게 뜨는 해가 숨을 멈출 정도로 엄청나게 빛나고 있었다. 어떤 아줌마는 커다란 항아리를 해를 향해 들고 마치 태양의 광선을 항아리에 담은듯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저 해는 이 지구 어느곳이나 같은 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을 떠나도 될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 한국을 떠나야지 했다.

내려오는 길에서는 웬지 마음이 가볍고, 이상한 총만함이 있었다. 산길을 다 내려와 민가가 보이더니 조그만 가게가 있었다. 캔맥주를 한개 사서 마시고, 공중전화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기억이 있다.

이날이 내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추석이다. 지리산을 안 가본 사람과는 대화가 안된다던 그 사람은 얼굴도 이름도 기억에 없었지만 그 말만은 이상하게 기억되고, 지리산 등반은 나에게 한국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언젠가 다시 지리산에 꼭 가보리라 생각한다.



정선주(간호 68)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줄의 글

“A man’s worth lies not in what he has, but in what he is.”

지난 4월 내가 꼭 가 보고 싶어하던 Southern Peru와 Bolivia에서 감격적인 3 주를 지내고 있었다. Lake Titicaca를 뱅뱅 돌면서 La Paz 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이를 여행하면서 쉬다가 볼리비아 수도인 Sucre 로는 거리상 비행기로 날아갔다. 다음 날 Potosi (세계에서 제일 높은 7대 도시 중 하나임 14,000 feet)에 가기 전, 점심 시간에 ‘The Devil’s Miner’라는 Documentary를 뜻밖에도 보게 되었다.

홀어머니, 12살된 남동생과 6살된 여동생을 둔 은광에서 일하는 14살짜리 볼리비아 소년 가장의 삶을 보여주는 진실한 기록이었다. 이 소년은 남동생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Potosi Mine 은광에서 장시간을 거의 먹을 것도 없이 coca leaves (energy를 얻기 위해서) 만 계속 씹으며 은맥을 찾기 위해서 지치고 속도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행여라도 다이나마이트가 터져 죽지 않기 위해서 El Tio 귀신에게 그나마 가져온 coca leaves를 바친다. 이렇게 해서 얻은 하루 돈은 2 - 3불 정도. 이들은 대부분 30

대에 진폐증(Silicosis)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는 흐느끼며 말한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살아 있었더라면.....”

Documentary가 끝날 무렵 나의 눈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내 얼굴을 적고 있었지만 내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우리 trip leader의 손을 짝 잡으며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 너무 고맙다고 “Thank you!” 라고 크게 말했다.

그리고 50년 전 고등학교 때 영어 문장을 접하며 마음에 닿은 한 영어 귀절이 평생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 화면이 끝날 무렵 다시 떠올랐다. “A man’s worth lies not in what he has, but in what he is!” 나를 진심으로 감동시킨 이 어린 소년가장에게 감사하며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한줄의 문구를 이 소년가장에게 바친다. 우리는 그들이 일하고 있다는 Cero Rico Silver Mine을 찾아 갔지만 나는 광산 밖에서도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이 소년가장으로 부터 얻은 감동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고 Potosi의 기억이 나를 평생 채찍질해 줄 것 같아 볼리비아가 그리워진다.

My Story & Your History



이중삼(문리 54)

1. 간단한 소개
저는 서울대 문리과 대학 수학과를 1954년에 정문으로 들어가 입학했다가 1955년에 옆문으로 빠져 나와 University of Oklahoma(OU)에서 Scholarship을 받아서 공부한 덕에 1959년에 Electrical Engineering의 B.S.를 수료 받았답니다. 그 후, Master degree 를 George Washington University(GWU), 1961년에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Ph.D를 전두하다가 큰병이 나서 다시 GWU로 돌아와 Dr. of Science를 1967년에 받았지요.

원래가 고아가 아닌 고아 생활을 했지요. 일사 후퇴 때 혼자, 후퇴하는 한국군인에 입대하여 전장에서 싸우며 이남으로 왔으니, 부모님은 물론 온 식구들이 이북에 남아 계셨으니 고아 아닌 외톨이었지요. 한국군인으로, 이북 군대에 포로가 되었다가 Oklahoma National Guard의 도움으로 포로에서 풀려 나왔어요. 그 인연으로 OU에서 장학금을 받는 인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 후에는 장학생으로 (과외 수학을 가르침) 부산 부두 노동과 석탄배

달, 가정교사 등등,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일 잘하던 수학을 전공하기로 수학과를 지일했던 것이죠. 허나 막상 수학과 걸장을 들춰보니 사실 공부하고 싶은 것은 Engineering 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서울대학에서는 전공과목을 마음대로 바꾸고, 더구나, 문리대에서 공과 대학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느낀 것이 유학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대학 제도에 의하면,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 나오기 힘든 때였지요. 지금은 어떤지...

GWU에서 Assi - Prof(1965 - 1968)로 가르치면서 Navel Res. Labs 와 Radiation Systems, Inc., Mclean 에서 Consultant 로 있으면서 IBM과 Comsat Labs에서 Advisory Engineer in Military Satellites 에 흥미있는 일을 많이 했지요. 또, 1969 - 1973, Catholic University(Wash, DC)에서 Assoc. Prof 로 electrical Engineering 을 가르쳤고 그 후 Magnavox, Assoc - director 로 일하다가 1973에 Jhong Sam Lee of the Military and Satellit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nsulting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classified military project 와 Global Positioning satellite (GPS) system 과 CDMA based wireless cell-phone system 에 종사하였답니다. 거의 하는 일이 classify 됐으니 남들과 이야기가 는 못하게 되었었지요. 물론, 식구들로 모르고.

1. 228-page of ‘Bible of computer program developers, the CDMA System Engineering Handbook, 1998’의 저자로서 LAI (Jhong Sam Lee Associates, Inc)회사의 제작 V. P. 인 Len miller 와 책을 썼답니다. Google 에서 Jhong Sam Lee를 검색하면 더 자세히 읽어 보실 수 있어요.

Wireless Communication의 Engineer 들은 그 책을 거의 공부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서도 이 책을 번역한 것으로 대항공부한 분도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의 LIFE FELLOW 로 1992에 ‘anti-Jam receiver design techniques for frequency - hopping spread spectrum system’으로 인정 받았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자랑스런 성취라 하겠지요. Anti- Submarine warfare technologies and space satellite technologies develop 하는데도 도왔고, 그것이 바로 1980s에 Star Wars 로 알려졌죠. Patent 들도 여러개 가졌었고, 180편 이상의 Paper도 썼지만 남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허무--?

2. 미주 첫인상
미주 첫 인상으로는 두(2)주일간 베를린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미래의 장모가 될 Sonia Suk 을 찾아서 S.F 경주도 했대요.

물론 미래의 장모를 찾을 때는 장기열의 친구라고만 했대요. 아무런 지위도, 학벌

도, 돈도 없는 사람을 어느 장모될 분이 반가워 하겠어요? (춘향의 언니도 그랬듯이)

3. Favorite Things
Classical 음악은 거의 다 작곡가의 이름을 대가며 들었구요. 전쟁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한국전쟁 탓이라고 할까요?) 권투시합 보기를 좋아 했지요. (1950s -1970s) Golf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장타는 거의 말아 놓고요.

4.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커피 술과 담배를 끊은 것은 집안 식구들이 여러개의 바가지가 구멍이 나도록 굵은 탓이겠죠

5. 만일 서울대학생으로 다시 과거 서울대학생으로 되돌아 가기보다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도 했고, POSCO에서 여러번 강의도 했어요. 게다가, Oxford University 에 초청이 되어 거기서도 강의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실력’보다는 ‘인맥’이 우월한 사회가 아닌가요?

6. 동창회보 발전
물론 작별하기 전(2009), 한국에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모두 허무한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허나 나중에는 Bible을 여러번 읽고, 공부를 하니, 하나님 믿음이 남음이 된 것이죠. 동창회보 발전은 구독하시는 분도 직접 참가하며 소식을 받고, 협조적인 자세가 좋지 않을까요?

(이상은 50년 동안 그대와 같이 ‘우리집 사람’ 장효열의 글입니다.)



송윤정 (인문 89)

고국 땅의 이방인

2016년 1월에 필리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하루 들러 부모님을 뵈게 되었다. 마닐라 공항에서 연착돼 자정이 넘어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새벽 다섯 시, 짐을 찾고 현금을 인출한 후, 부모님이 타고 오라고 알려준 리무진 버스를 찾았다. KAL 리무진 버스 창구에 가, 안양-범계로 가는 버스를 몰으니 리무진 버스는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곤 바로 옆, 줄이 길게 늘어진 공항버스 플랫폼을 가르키며 통명스레 하는 말: “저기 가보세요.” “제 부모님이 리무진 버스 타고 오라고 하시던데요?”하고 되물자, 창구 여직원은 하품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여기선 공항버스도 다 리무진이라고 해요!”

하는 수 없이 공항버스 창구 앞, 긴 줄 끝에 서서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여섯 시 7분 전. 부모님이 내가 여섯 시 버스를 타

고 오는 시간에 맞춰 버스정류장에 나와 계시겠다고 했는데, 이 긴 줄을 기다려 표를 사려면 몇 시에 차를 탈 수 있을지 모를 형편이었다. 5시 55분, 밖에서 한 여자가 들어와 긴 줄에 선 사람들을 보며, “여기서 꼭 표 안 사셔도 돼요! 차에 타셔서 계산해도 된다고요!” 하고 외쳤다. 난 양손의 두 여행 가방을 바꿔 빠질 지경으로 달려 안양-범계행 버스가 서 있는 곳에 다다랐다. 차 문에 서서 표를 받는 기사에게 “전 표를 못 샀는데, 차에 타서 돈을 내도 되나요?”하고 물으니, 그가 하는 말: “표 사서 다음 차 타요, 그렇!”

그 긴 줄에 되돌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해, 나도 지지 않고 맞섰다. “표 사려니까 안에 줄이 너무 길어서요. 누가 표 없어도 차 타서 내면 된다던데...” 그 순간, 승객들 짐을 짐칸에 넣고 있던 청년이 내게 공항 문 앞에 설치된 대표표를 가르키며 “저기서 표 사시면 돼요.”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곤 둘러보니 밖에 여러 대표표가 있었고, 그곳엔 기다리고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바빠 바로 앞 한 창구에 달려

지부 소개

북가주 N. California



Rt 1, Coast line



2-mile long Stanford Linear Accelerator



Alcatraz



Big Sur



Fisherman Wharf San-Francisco



Pebble beach



Stanford University



Yosemite



UC Berkeley



Korean War Memorial



1. 동창회 설립과 연혁

공식명칭 :서울대학교 북가주 총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Northern California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Tax (Non-Profit) ID# : 45-5263852

2. Cover 지역

Northern California는 대강 Fresno 이북의 전 California를 말한다. 주요 도시로는 San Francisco, Palo Alto, San Jose, Sacramento 와 주위의 수 많은 도시를 망라하며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전자산업의 메카인 Silicon Valley 를 포함한다. 현재 명부에 등록된 동창회 멤버는 691명. 보통 모이는 숫자는 70-120.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 501, 연락 가능 601 (아래 도표 591에서 update됨)

3.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

2016 골프장소:솔라인 골프 코스
날짜:6/4/2016
참석 인원:플레이어 38명,
대회장:강 정수
자원 봉사 참여자:8명

2016 가을 야외회장소:산타 클라라 카운티 파크
날짜:9/10/2016
참석 인원 65명

2016 연말 파티
날짜:12/3/2016
참석 인원 70명



2016 가을야외회



2016 연말파티



이윤정 독창회

단과대 동창회 - 간호대, 미대, 음대 음대(04입학) 동문 이윤정 소프라노 독창회가 안영실 (79.음) 피아노 반주로 Palo Alto에 있는 Grace Lutheran 교회에서 3월11일 2016년 열렸다. 가문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서울대 동문이 참석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Handel "Lascia ch'la pianga"로 시작으로 신아리랑 등 한국의 가곡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Puccini의 La boheme "Quandom'en vo"로 끝을 맺었다. 새로운 화법으로 세계 화단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원미람(미.65학번)동문의 개인전이 "FIRE & LIGHT"라는 Title로 Burlingame에 있는 The Studio shop Gallery에서 3월 11 -26, 2016 열리었다. 이번에는 Gold leaf 또는 gilding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새로 개척하였다. 간단히 소개하면, 24금 순금부터 12 카라트까지의 gold nugget 을 기계로 얇게 피고 퍼서 아주 얇은 종이같이 만들어서 gold leaf 라고 하는데 그걸 작품 위에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이는 것이 과정이다. 옛날 중세기 성화나 유럽에 건축물에 금을 입혔던 작업과 같다.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기법에서 오는 새로운 표현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음대 이윤훈(Tenor) 교수가 San Francisco Opera에 데뷔하였다. 9/9-9/30 여섯번의 공연에 Umberto Giordano 작곡 Andrea Chénier의 주역인 Andrea Chénier 역을 맡아 Opera House를 꽉 메운 관중들을 감동시켰다. "Yonghoon Lee made an impressive debut. singing with big, muscular sound, his opening aria, 'Un di all'azzurro spazio,' came across with passionate emphasis." (The Mercur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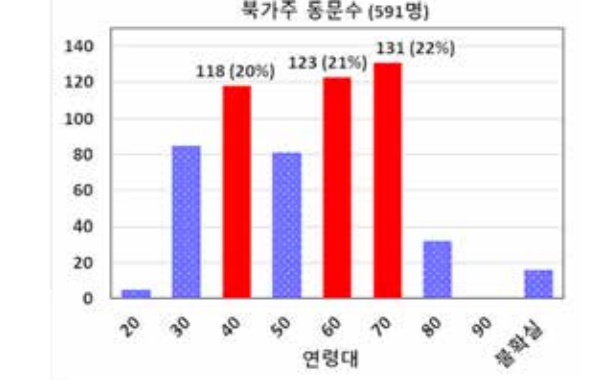
4. 동문들의 삶의 모습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연령분포는 50대 미만보다 60, 70대가 많으나 실제로는 등록 안된 동문들이 많을 것으

5. 동창회가 설립 후 이제까지 해온 일 중에서 자랑스러운 일은? 타 지부에도 권하고 싶은 것은?

Hiking: 매주 같은 시간에 이지역 Zinfandel Trail이라 불리는 같은 산길을 오가는 SNU Hiking - Zinfandel Club산행은 2016년 말로 166차가 되었다. 매년 몇번은 더 좋은 트레일을 찾아 원정 가기도 한다. 또 소그룹을 만들어 일년에 한 두번은 세계적 명소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건강과 우의를 다지며 매주 만나고 산행후 간단한 브런치를 하며 답사하면서 선후배의 격의없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Zinfandel Hiking의 소식들을 모아보니 얼마 안되는 것 같은 내용들인데 어느새 100 페이지 가량이 되었다. 한만섭 동문 (공대 49)께서 편집하고 계신 이 소책자가 곧 모두에게 소개되기를 기대한다. 산행 3년을 기리어 이용각 (공대58) 동문께서 시를 한편 써 주시었다.

북가주 동문 연령 분포



6. 미주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이 중에서 특히 지역을 상징하는 단 한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유는?

이지역의 관광 명소라하면 두말 할 것 없이 금문교와 그 주위의 소개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동쪽으로 내시건 거리에 요세미티 국립공원, 겨울 올림픽 개최지였던 레이일타호의 스퀘 밸리, 남쪽으로 세시간 거리에 아름다운 빅서 해안이 있다. 우리에게 특별한 새로운 명소도 생기었다. 바로 한국전 기념공원이었다.

In 2009, the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n (KWMF),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undertook the mission to design and build a Korean War

Memorial in San Francisco, in order to commemorate the sacrifices made by all those who fought in the so-called "Forgotten War," educate future generations about those sacrifices, and ensure that those generations never forget the true cost of war and the true price of freedom. That primary mission was accomplished on August 1, 2016, when the completed Memorial was officially opened to the public.

The San Francisco Bay Area was chosen for the Memorial site because it was the embarkation point for so many who went off to fight in that long-ago, faraway war, and the end of the journey for so many who returned, the living and the dead.

The Memorial stands in a prominent place in the Presidio adjacent to the San Francisco National Cemetery. It faces west with a breathtaking view of the Golden Gate Bridge and the Pacific, and beyond toward the now prosperous and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북가주의 Stanford 와 U.C. Berkeley는 5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역 27 명(20 at Stanford and 7 at U.C.Berkeley) 중 8명이 물리, 6 화학, 10 경제, 3 의학 분야이고 27명의 작고한 수상자 중에는 흔히 반도체의 아버지라 불리는 Dr.William Shockley가 있다.

7.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동창회 행사는 100% 임원의 봉사활동인데 생업과의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 행사는 많은 동문들의 찬조에 힘입는바 우리가 기금 모음을 항상 해야합니다.

8. 이번 평의회의에서 회칙에 따른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브런치



원미람 개인전



이사장	민병곤	공대(65)	650-799-1572	bkmin@msn.com
회장	임(박)희례*	간호대(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부회장	임준원	공대(77)	408-220-4260	joonwim@gmail.com
재무	오의미	간호대(73)	818-480-1552	weimioh@gmail.com
총무	정국휘	미대(88)	415-741-4853	cookey5351@gmail.com
섭외 자문	이장우	문리(72)	408-891-0200	jw.lee@att.net
편집 자문	한만섭	공대(49)	408-667-0968	hmansop30@gmail.com
장학 자문	박종성	법대(53)	914-714-5330	jpark0924@gmail.com
골프 대회장	강정수	문리(61)	408-242-0277	jsk50@comcast.net
사회봉사 자문	김철규	공대(60)	650-248-9581	cheolkkim60@gmail.com
학생활동 자문	윤도영	공대(65)	650-736-3424	doyoon@stanford.edu
등산회장	심동섭	공대(66)	408-482-8856	r1729ds@yahoo.com

장학금의 확보와 지불 대상의 선정은 쉬운 일이 아닌데 Scholarship Giving Options 으로 (가) 북가주 지역 동문들의 자녀 및 손주 대학생 학비 보조 (Scholarship Committee) (나) 서울대졸 북가주 지역 대학원생 유망 연구 보조 (Scholarship Committee/Student Relations Committee) (다) 관악회 (서울대 동문 장학회)에 일반 장학금 또는 특지 장학금 (>\$50,000) 으로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에는 여러 사회활동 및 봉사회가 있어 저희는 가능한만큼 기부해 주는 걸로 대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나눔의 봉사 활동으로 본부와 협조하여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합니다. 9. 기타, 하고 싶은 말 미주총동창회 (snuaa.org) website는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데 지부는 따로 website가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데도 있다. 총 website에 Facebook Blog처럼 지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다 생각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부가 현재 쓸 수 있는 공간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 민병곤(공대 65)이사장



Lands End in San Francisco, 뒤로 금문교가 보인다.



금문교



오페라 Andrea Chénier의 주역인 음대 이윤훈(Tenor) 교수



오페라 관중석



산타 크루즈

산 좋고 물 좋은 산타 크루즈(성 십자가)에 정착한 지 23년이 되었다. 나의 60평생 중, 한 곳에서 산 것으로 치면 제일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나의 생을 마감하려 하니 제 2의 고향이라고 해도 되겠다.

더구나 작년에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묘소 옆에 남편과 나의 영원한 안식처를 미리 마련하여 놓았으니, 어디 다른 곳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게 되었다.



러시아의 이콘화와 서양화<상>

서양화의 시작은 1- 3세기에 에 집트의 파우에서 발견된 미라 초상화(Fayum Funeral Portraits)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금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작은 부자들은 화가들한테 부탁하여, 미라를 담은 목관 표면에 초상화를 그려 넣었다.

2천 년 전에 만든 에집트인의 초상화가 더러 남아 있다. 잘 보존된 밀랍화는 실물을 보듯 생동감 있는 사람 모습을 보여준다. 이 화가들은 초상화만 그렸고, 그 외에 다른 그림을 주문하는 고객이 없었던 듯하다. 이들은 나무관의 뿔받치 위에, 뜨거운 밀랍에 섞은 물감으로 그렸다.

밀랍화의 한 가지 단점은 그림 때 밀랍의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고, 작품이 완성된 후에도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의 크기가 제한되었고, 완성된 후에 습도나 온도가 높아지면 밀랍이 미세하게 터져서, 그림이 뿌옇게 되는 (blooming) 문제가 생긴다. 밀랍화는 습도 뿐 아니라 추위도 잘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파움의 초상화가들은 템페라 기법을 쓰기도 했다.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 안료(顔料, 주로 물이나 흙 가루)를 달걀의 노른자와 물을 섞어 이겨서 물감을 만들었고, 이것을 템페라(tempera)라고 한다. 화가의 취향에 따라 흰자를 섞기도 했다. 또한 안료가 독성이 있을 경우 화가는 숯칠 때 안료 가루를 들이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조르조 바사리(Georgio Vasari)에 따르면, 얀 반 에이키(Jan van Eyck, 1390-1441년)는 16세기에 들어서야 마유(linseed oil)로 녹인 물감을 써서 나무 판자 위에 유화 그리는 법을 발명했다고 한다. 유화의 한 가지 단점은, 모나리자의 경우처럼, 세월이 지나면 물감 칠한 표면이 갈라지는 것이다. 이때부터 또한 유럽에서는 나무 판자보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캔버스의 장점은 화폭을 아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리 화가들은 큰 교회의 벽에 회반죽을 칠하여 그림 바탕을 준비한 다음에 회벽을 화판으로 삼아 프레스코(벽화)를 그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도, 회벽 위에 템페라 기법으로 그렸다.

레오나르도(Leonardo)와 그의 선생 베로키오(Verrocchio)은 포플라 목판 위에, 수대 고지(Annunciation, 사진)라는 그림을 같이 그렸다. 선생은 남이 들어간 페인트를 써서 마리아를 그렸고, 레오나르도에게 가르치

그동안 이곳에 살면서, 대관령 같이 구비구비 돌며 험한 17번 도로 커브 길을, 사시사철 변하는 모습을 감상하며, 산등성이를 넘나들며 매일 산호세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고도 났었고, 출퇴근길에 교통 정체가 심해 고생도 했었지만 올 겨울 폭풍처럼 산사태로 인해 아예 교통이 두절되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산호세에서 지내야 했던 경험을 7번이나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의 산타 크루즈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날씨가 온화하고 공기 좋고, 10분만 나가면 아름드리 레드우드가 뺨뺨히 위음을 자랑하고 서있는 산과, 배로 가면 15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을 마주한 태평양 바다가 양쪽에서 반겨주며 樂山樂水(오산오수)를 즐길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더욱이 이곳 사람들은 매우 순박하고 친절하다. 현대와 옛것이 어우러진 고색창연한 다운타운을 걷다가(다운타운이라 해 봤자 남북으로 길게 난 길을 5분만 빨리 걸으면 끝나는 길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빙긋 미소를 짓거나 "하이!" 하며 지나간다. 오죽하면 유타 주에서는 흡리스들에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편도 그레이하운드 버스표를 사주고 캘리포니아주의 산타 크루즈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 돌아오지 말라고 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어디에서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생명력이 강한 민들레 같이 질기고 힘차게 산타 크루즈의 한인으로서 산 증인이 되어 즐거운 생을 살아갈 것이다. (북가주 동창회장)



The Transfiguration, Raphael (목판화, 템페라, 1516-20년), Vatican Museum

은 교회의 벽에 성화를 그리기 대가들을 모을 수 있었다. 처음에 화가들은 경제력이 있는 교회를 위하여 성화만 그렸으나, 그림 기술이 발달되자, 그리스 신화나 민족의 역사를 묘사하거나 인상과 화가들처럼, 예술 자체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회는 서양화의 발달에 지대한 후원자 노릇을 했다. (계속)

Annunciation, c.1472 - Leonardo da Vinci



노영일 (의대 62)

졸리오는 내가 삼십년 동안 단골로 다니던 이발사다. 처음 이민와서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아내가 내 머리를 깎아줬다.

이런 이사를 담아야 상자를 열어놓고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는 아내에게 내 머리를 맡겼다. 처음에는 들쭉날쭉하게 잘라 역시 예술가는 예술적으로 머리를 깎는다고 놀리곤 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러나 퇴짜를 맞을 것 같아 더이상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내의 자비심에만 맡겼다. 여러번 깎더니 아내도 아내대로의 요령이 생기고 기술도 늘어 제법 전문이발사 못지않게 깎았다.

수련의 과정이 끝나고 직장을 잡고 나서는 아내도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빠지고, 나도 체면상 그래도 머리는 이발소에 가서 깎아야 할 것 같아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며 적당한 곳을 찾았다. 내가 나가는 병원에서 멀지않은 곳에 작은 상가가 있는데 그곳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다.

병원을 오가며 들리기가 편할 것 같아 그곳에 들어갔다. 이발사가 셋이 있는데 거울위에 잔, 졸리오, 팀 이라고 이름이 적혀있고 이발자의 앞에는 손님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었다. 자기가 원하는 이발사앞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선착순으로 이발을 해주는 것이었다. 졸리오 앞의 의자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 '아하, 이 친구가 제일 인기있는 이발사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앞에 앉았다. 조금 더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잘 깎는 사람한테 깎고 싶었다.

처음 오는 손님이나 어떻게 깎고 싶으냐고 묻는다. 내 나름대로 아내에게 잔소리하러다 꾸욱 참고 있던 나의 소원을 자세하게 읊어댔다. 그는 알겠다고 하더니 거울이 내 등 뒤로 가도록 이발의자를 돌려놓고 묵묵히 깎기 시작했다. 한국이발소에서는 거울을 앞에 놓아 깎는 과정을 다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왜 돌려놓고 깎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 깎은 후 갑작소라도 할려고 그러는가? 깎는 동안에 잔소리할까봐 그러는가? 앞에 앉아있는

이렇게 하여 단골이 되어버렸다. 졸리오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점이 좋기도 했다. 그래도 몇년이 지나니 내 이름, 내가 의사라는 것, 어디서 일한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됐다. 한번은 내 환자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한테 받은 치료를 과장하여 무용담처럼 떠벌려대는데 10인치짜리 바늘을 목에 찔러 한쪽으로 들어갔다가 다른쪽으로 나왔는데도 자기는 꼭 참았다고 한다.

졸리오가 한눈을 찡긋 감으며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발이 끝나고 일어 서면서 내가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하이, 닷" 하고는 뺑소니 쳐 버린다. 시간이 없어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에 가도 "집에 가야 별 할 일도 없

다"며 나를 자리에 앉히곤 했다.

처음에는 갈 때마다 어떻게 깎을까 물어보곤 했다. 한번은 이렇게 깎아 달라고 하고 다음번에는 저렇게 깎아달라고 했지만 깎고 나면 매번 결과는 마찬가지로였다. 무엇 때문에 물어 보는지 알 수가 없었다. 깎는 방법을 한가지 밖에 모르는 듯 싶었다. 마치 자기 틀에 내 머리를 넣고 매번 그대로 깎는 것 같았다. 얼마 후부턴다는 졸리오가 "다들기만 할가요?" 하면 나도 고개만 까딱하고 백마디의 의사소통이 순식간에 이상전심으로 끝났다. 깎아는 모양은 항상 똑같았다. 더 이상의 기대도, 더 이상의 실망도 없었다. 나도 영화 배우나 정치가들처럼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해보고 싶었다. 아내에게 불평을 하니 요즘에는 남자도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는다고 한다.

이발소 근처 미장원을 들어가보니 진짜 남자들도 깎아 머리를 깎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보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거북하기가 말할 수 없다. 잘라주는 머리도 배우들같이 멋있지도 않았다. 다음번에는 다시 졸리오에게 갔다.

이렇게 30년이 지났다. 이들도 세월의 풍상은 이겨내지를 못했다. 잔이 제일 먼저 은퇴를 해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다. 풀이란 친구가 잔자리에 들어섰다. 졸리오 오는 잔이 은퇴한 곳에 몇번 다녀오더니 거기는 너무 더워서 못살겠다고 한다. 자기도 은퇴할 자리를 보러 다니는 듯 했다.

이태리에 자기 친척들이 있어 그곳에

이태리에 자기 친척들이 있어 그곳에

이태리에 자기 친척들이 있어 그곳에



Fact Finding on LELA Art Festival

지난 9월호에 'LELA Arts Festival'에 출품한 동문 화가들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첫 부분이 'LELA ARTS FESTIVAL은 1996년 히데오 사카다, P. Khemraj, 요코 Kamiyjo에 의해 예술운동으로 시작되었다.'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잘못된 내용임을 작품을 전시한 어느 동문이 지적해 왔다. 사연인즉슨, 현재 LELA (http://www.lelainternational.com)의 운영자인 사카다 씨가 제공한 내용을 취재/기재한 결과 그의 주장만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ELA ARTS FESTIVAL의 LELA 이름은 원래 Lantern of the East 로 1996년 화가 이계송씨가 한국 경기도 평택에서 국제 예술운동을 설립하여 시작된 것으로, 1996년 부터 2001년 까지 매해 평택에서 예술활동을 했고 2002년 Los Angeles에서 두번 예술 활동을 가진 후로 Lantern of the East 에 LA를 첨가하여 LELA가 되었다. 이 해에도 한국작가

LA의 이 동문은 사카다 씨와 LELA (Lantern of EAST in Los Angeles)의 현황을 전하며, 지난 20년 동안 많은 미국 내의 한국인, 특히 남가주 동문 작가들과 한국내의 작가들이 주를 이루 참가해 오고 있다고 전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LELA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원고 모집합니다

특집 주제: **아, 청춘!**

4월호 특집 주제는 '아, 청춘!'입니다. 20대 학창시절에 겪었던 감격과 좌절, 정열을 불사르던 경험담을 200-300 단어 정도로 들려주세요. 그 당시의 생생한 사진도 함께 나눠주세요. 1월의 특집 주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의 말, 한줄의 글, 한편의 책'과 2월의 주제인 '미국에 와서 배운 교훈', 3월 주제 '한국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도 계속 모집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 원고 · 시론,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수필, 시, 독후감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도 필요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u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건강 | 치매 원인 물질 ‘가위’로 잘라

치매 유발 단백질을 가위처럼 깎아 줄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됐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는 임미희 자연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절단할 수 있는 전이 금속 기반 착물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성인 사망 원인 6위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지금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등이 원인 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관찰되는 노인성 반점을 구성한다. 이 단백질이 신경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 주요인자라는 보고가 대다수다.

연구팀은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독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금속 착물을 이용해 절단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기존에도 금속 착물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테트라-엔 메틸레이티드 클램, TMC’ 이라는 결정 구조를 이용해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가수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수분해는 물 분자가 작용해 분자 결합구조를 끊는 방

식이다. 금속 이온을 중심에 배치한 TMC 구조는 외부 물을 끌어와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결합을 효과적으로 잘랐다.

이번 연구에서는 TMC 구조 중심에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등 4가지 금속이 배치됐다. 이중 코발트가 중심에 들어갈 경우 가수분해 활성이 가장 높았다. 특히 코발트 기반 금속 착물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할 잠재력이 있었다. 또 비아밀로이드성 단백질에서는 가수분해 활성이 낮았다. 이 물질이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유발하는 독성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살아있는 세포 실험을 통해 관찰됐다.

임미희 교수 (사진, 이대화학 92)는 “코발트 착물은 가수분해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의 결합을 끊어 독성을 낮출 뿐 아니라 이 단백질에서 나온 독성 자체를 낮출 수도 있다”라며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 뇌 속의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과 만날 수 있으므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화학회지 편집장이 직접 표지 논문으로 제안할 정도로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용 원리까지 상세하게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까



지 탄탄하다고 평가받았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2월 15일자 표지(<http://pubs.acs.org/toc/jacsat/139/6>)로 출판됐으며 ‘주목할 만한 논문’(JACS Spotlights)에도 선정됐다.



불멸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

자녀나 자선 단체에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복잡하고 대면하기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문제를 직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키워가는 것보다 더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편한 마음으로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준비된 재산 상속이전은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재산을 온전히 보존하며, 상속을 위한 비용 및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속계획은 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전하여 수여자들이 가장 적은 세금의 부담을 가지면서 또한 장기간 서로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골자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상속 계획을 시작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사망 시에, 그의 재산은 다음 세가지로 1) 가족과 친구 2) 자선 단체 3) 정부 세금으로 이전 된다.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40%에 달하는 상속, 증여세로 인해, 잘 준비된 상속계획은 세금을 절감하며 더 많은 부분이 본인에 뜻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각종 자선 단체 (Charity) 측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유산 상속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즉, 1)유언장 2) 재산 및 건강에 관한 위임장 3) 취소가 능한 신탁이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유산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완벽한 재산 상속 계획을 원하지만, 일단, 완전히 않은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각자의 내부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의 변화 또한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금 우리 계획이 기초가 되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완해 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가까이 우리의 재산 및 유산이 이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산 이전을 위해 다음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1)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2)상속인이 특별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 장기간의 간호 등 3) 우리의 자산이 필요로하는 것은 없는지 - 사업체인 경우, 당신의 재능과 관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4) 특히, 여러분이 속해있는 단체, 자선 단체를 위한 특별한 꿈과 비전이 있는나,에 따라 상속계획이 작성되고 실행될 것이다.

대부분은 재산의 신탁을 설정하여 유산을 피상속인이 바로 처분하는 대신 관리하며 재투자함으로써 가족의 재산에 대대로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산 관리 방법이다.

그러면, 재산 이전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면세되는 재산의 액수는 어떤가를 살펴 보자.

즉, 1797년에 도입된 Wealth Transfer Tax는 3가지의 세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1) 증여세금 (Gift Tax) 이며 2) 상속세 (Estate Tax) 그리고 차차세대

로 상속하는 세금 (Generation Skipping Tax: GST) 이 있다.

먼저, 증여세는, 재산의 증여 시에 시장가격으로 책정되며 그 세율은 40%에 달한다.

증여, 상속, GST 세금 공제 액수는 2017년에는 5.49million으로 인상 되었다. 증여세에는 1) 매년마다 각 개인에게 줄 수 있는 \$14,000과 2)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의료비 충당하기 위한 gift 액수로 추가 공제 된다. 물론 미시미권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액수에는 그 제한액이 공제가 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기증되는 액수 또한 액수 관계 없이 세금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 시에 본인의 공제 액수는 5.49million이고 배우자가 생전에 사용하지 않는 액수를 추가할 수 있다.

우리가 모아온 부를 우리가 뜻하는대로 잘 이전하기 위하여, 미국의 양도 증여법의 변천, 그리고 그 관련 법률을 검토함으로 노후의 제반 Financial Plan, Wealth Transfer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고자 한다.

미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반 세금 중에, 2014년 경우에는 약 19.3 billion을 걷었으며, 전체 세수의 약 0.6% 정도였다. 그것은 제일 높았던 1972년도에 2.6%에 비교된다. 2013년도에는 사망자 2.6 million 중에 약 0.2%인 4,700명만이 상속세를 file했다.

지난 20여년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온 재산 이전 세금은 2001년 “ The Economic Growth &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2002년 2009년을 거쳐 면세 금액이 3.5million으로 올라갔다가, 2010년 한해에는 관련 세금이 없는 한 해가 되기도 했다. 그 해에 양키 구단주 George Steinbrenner는 사망하여, 그의 재산 약 11.5억 달러에 관한 45%의 상속세를 고스란히 면세한 예도 있다.

2012년에 새로 도입된 세법에 의하면 5백만원의 면세 액수에 세율이 35%에서 40%로 수정됐으며, 매년 2013 (5.25m) 2014(5.34m) 2015(5.43) 2016(5.45m) 2017(5.49m)로 변하여 부부가 함께라면 11 M이 공제가 되며 최대 세율은 40%가 된다. 부부간 재산 이동은 모두 면세이고, 미시미권자가 아닌 spouse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의 양도재산의 가치는 일종의 시장가격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장례 비용, 상속 위한 비용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공제금 이상의 재산 중, 백만불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한다면 40%의 세금을 제외한 60%인 60만불이 이전되는 것이고, Charity/모교 서울대 club 조성기금으로 기부한다면, 기부 전액이 건요하게 쓰일 것이다.

옛말에 담대심소(膽大心小)라는 말이 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의 마음가짐이기도 한데, 그 뜻은 ‘담대함과 세심함을 함께 가지라’라는 뜻이다. 현실의 제한 속에서도 결코 약해지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고, 섬세한 예술 감각으로 아름다운 시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이민의 삶, 담대한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섬세한 예술 감각으로, 한 편의 우리들의 서사시를, 천만불 모금으로, 서울대 클럽 설립을 통해서 불멸을 꿈꾸며, 이 땅에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다시 생각난다. ‘I knew, if I stay long enough there, something like this will happen.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영재는 행복인가?

정성희 (인문 78)

최고 수재만 모인다는 하버드대 학생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하버드대 의대는 재학생 268명을 선정해 72년간 추적했다. 연구대상자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있었다.

1938년 연구를 시작한 알리 복은 졸업생들이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꼬박꼬박 아래 고통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어받은 조지 베일런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등 7개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발표했다.

▷여성 영재에 대한 추적조사로는 1922년 스탠포드대 루이스 터먼 교수가 캘리포니아의 도시 지역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유명하다. 이들의 평균 아이큐는 151이었다.

70년에 걸친 연구에서 이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성취는 별로였지만 대체로 장수하고 있었다. 다만 장수한 이유는 아이큐가 아니라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비만, 알코올, 흡연을 관리한 덕분이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8개 영재학교의 올해 신입생 800명을 대상으로 40세가 되는 2041년까지 25년간 영재성 발현 요인과 사회적 성취도, 삶의 만족도를 추적하는 중단(繼斷) 연구를 시작한다.

이런 방침은 2003년 영재교육이 본격화한 후 13년이 지났지만 영재교육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 학교 대비 7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상당수 졸업자가 의대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 영재교육에 회의감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영재의 두뇌는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자산이란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영재를 선발해 특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 준다. 페이스트브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나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영재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재학교는 들어가기 위해서도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들어가고 나서는 일류대 진학으로 가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재교육을 받은 사람이 훨씬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이번 연구가 해답을 주리라 믿는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책을 읽고 도덕경을 논하라

이명재 (상대 58)

이명재 동문이 ‘이 책을 읽고 도덕경을 논하라’ (도서출판 자연과 사람들)를 발간하고 고전 읽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 나서기로 했다고 미주중앙일보가 전했다. 1958년 모교 상대를 졸업하고 테니스 주립대에서 공부하며 미국과 인연을 맺은 그로서는 대학 시절 한 번 정도 읽어봤던 고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공도 달랐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른 2001년 도을 김용욱과 여류문인 이경숙의 해석 논쟁이 지식인들의 흥미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흥문의 지적 호기심도 자극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서적을 모두 탐독하게 됐다. 그러곤 책들의 번역이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동일한 번역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길로 고전 해석, 특히 도덕경과의 씨름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그는 도덕경이 난해한 이유를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자의 뜻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2600여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해왔고 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자의 시대적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접근법을 달리했다. 오늘날 통용되는 한자의 뜻을 해석에 사용하는 것을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까지 지적했다. 본래 노자가 사용하려한 뜻을 찾아내 사용하는 새로운 어포치를 활용함으로써, 분명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번역들을 조목조목 잡아내는데 주력했다.

노자가 사용한 한자의 뜻이 공자의 것과 다르다고 그는 주장한다. 5000자에 불과한 ‘도덕경’의 주석을 장구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게 막는 한 원인으로 꼽는다.

“숨어져 있는 뜻, 노자 선생의 숨은 의도에 집중하면서 옥편을 한자 한자 들여다 봤어요. 노자 선생의 의도한 다른 의미가 (후대에 오면서) 잊혀졌거나 다른 번역가들이 놓치지 않았나 집중하다 보니 의미가 통하는 번역이 나온 것이죠.”

말 그대로 한자와의 씨름이었다. 같은 한자라도 문맥에 따라 복수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도덕경이 아름답고 간결하게 운이 잘 맞는 시형(詩形)을 갖춘 점도 번역의 고단함을 더했다.

이 동문에 따르면 노자는 핵심 사상인 도(道) 자를 ‘도덕경’에서 76차례 사용했다.

이것만으로도 ‘도’자의 의미가 얼마나 폭넓게 사용된 글자인지 독자들도 짐작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도가 품고 있는 넓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도덕경을 제대로 주석이나 번역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한자 해석이 수반돼야 했다. 때로는 밤에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뒤 한자 의미가 떠올라 번역의 실마리가 풀린 적도 있다고 했다.

“정확한 통제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1500편 이상, 일본에서는 300편 이상이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번역됐다고 합니다. 한국도 150편 이상의 번역이 있는데 이윤곡, 정약용 선생도 번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의 책이 세상의 빛을 본 것은 2015년 11월이다. 2001년 한국에 다녀온 뒤 12월부터 번역과 집필에 몰두했으니 15년 안팎의 시간이 흘렀다. 풀리지 않는 난제와의 지난한 시간 싸움이였다.

이씨는 이처럼 각기 다른 번역이지만 모든 번역가들의 공통분모는 “누구라도 자신의 번역이 100%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어떤 것이 집필 과정에 가장 힘든 점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씨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을 내가 하는구나,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때였다”고 말했다.

그의 번역과 기존 번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흥문은 도덕경 1장의 ‘고상무욕 이관기묘’ (故常無欲以觀其妙)를 예로 들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물의 바탕을 제대로 보게 되지만, 욕심을 부리면 그릇되게 사물의 바탕을 본다는 뜻풀이라고 이씨는 해석했다. 같은 것도 욕심을 품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른 번역들과 비교하며 읽을 것을 권했다.

이흥문은 이 책에서 직역과 직역모듬, 의역으로 세 번 풀이했다. 저자의 의역으로 1장을 다시 보면, “인간은 처음 아무런 명성도 없이 태어나서 세상을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명성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세상만사를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면 삼가야 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노자가 의미한 ‘도(道)’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말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노자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4장 마지막에 있는 ‘상제지선’ (象帝之先)은 그에겐 남다른 대목이다. 그는 뜻풀이를 전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과 같다’고 했다.

저자에게 하느님은 ‘하늘’과 ‘님’을 합친 신의 영역과 동격이다. 뜻풀이에 따라서 후왕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기 전 제왕의 권위가 시들고 후왕들이 세를 부풀리는 시기에 노자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후왕들을 교화할 뜻에 도덕경을 집필했다고 그는 해석했다.

“국립도서관장 격인 노자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것이고, 글을 써서 후왕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교정시켜 백성을 착취, 수탈하는 행동을 조소이라도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도덕경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철 동문 산수화 전시회 ‘하나님 섭리 깃든 자연 묘사’

박상철 목사(84·사진)가 내달 8~12일 오전 10시~오후 5시 버지니아 에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목사 한세영) 선교실에서 산수화 개인전을 연다.

의 목자시니’ 등으로 지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림을 그렸고, 사적 이익을 위해 그린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모든 수익금을 선교비로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서울대 미대에서 수학하고, 한국화의 대가인 남봉 허건 선생에게서 사사했다. 기자로 15년간 재직하면서



▷문의: 703-362-5052

도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 1977년 미국에 온 뒤 개인전을 4차례 열었고 이번이 5번 째다. 박 목사는 “미술전시회를 원하는 교회의 신청을 받는다”며 “수익금은 선교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소나무와 산, 물을 그린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박 목사는 “제 그림을 보는 분들이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으면 좋겠다”며 “그림제 목도 ‘평화로운 기독마을’, ‘여호와와 나

애들아, 사랑해... 지혜를 담은 따뜻한 글·그림 손주들에게 특별한 사랑 전하는 두 동문

사랑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소중한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카드 한 장 건네는 일이 어색하지 않은 시기. 세월 한 바람에도 마음만은 훈훈한 이유다.

은행 뉴욕·런던지점 등에 재직하며 오랜 해외 생활을 해온 그는 모든 글을 영어로 적었다.

이 이메일들을 묶어 최근 책 ‘할아버지의 선물(영문판 Grandfather’s Gift)’을 펴냈다. “손주들에게 보내던 소박한 정성과 마음을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 계획에 없던 출간을 결심한 것. 짧은 금언 아래엔 ‘어린 시절 아름다운 기억들을 많이 쌓아두어라. 네 마음속 영원한 보석상자가 되어 줄 거야’, ‘어려서부터 평생 떳떳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얼굴을 만들어라’ 등 지성함 당부를 덧붙였다. 혹 ‘잔소리’가 될까 조

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을 올려다보게 될 날이 기다려진다”는 이 동문.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바쁜 가운데에도 앞으로 손주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힘이 되도록 ‘할아버지의 선물’을 계속할 예정이다.

주던 기억을 떠올린 것.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던 이 동문이었다. 새로 배우는 일에 거부감이 컸다. 그러다 셋째 손주를 얻으면서 ‘손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언젠가는 지켜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이스북에 근무하는 아들의 ‘특훈’을 받아 SNS를 익혔다. 그림 실력도 갈수록 일취월장해 채색과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고 하루 한 장씩 그려낼 정도로 속도도 붙었다.

이찬재 동문, SNS로 그림 선물

1981년 브라질로 이민해 살고 있는 이찬재 동문. 그는 한국과 뉴욕에 사는 손



혀 들려주던 이야기를 이메일과 SNS 같은 첨단 매체로 전하는 ‘신세대 할아버지’들이다.

이영우 동문, 매주 격언 이메일

이영우 동문은 지난 2011년부터 매주 한 통씩 미국과 홍콩에 사는 손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삶의 지혜가 담긴 격언과 속담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내용이다. 오랜 시간 인류의 길잡이가 되어준 금언들이 손주들의 앞날에도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했다. 한국외환



심스럽게 고르고 다듬은 말들이다.

손주들의 답장은 할아버지가 계속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됐다. 첫째와 둘째 손주 단 두 명으로 시작한 독자는 글을 배우고 이메일 주소를 만든 어린 손주들이 합류하면서 다섯으로 늘었다.

‘할아버지가 보낸 격언으로 에세이를 써서 칭찬받았다’는 큰 손주의 말도 보람이 됐다.

“손주들이 자랄수록 내 몸집은 작아지만 늙음이 서글프지 않다. 더 늙은 할



주들을 위해 붓을 들었다. 2015년부터 SNS인 인스타그램(ID: drawings_for_my_grandchildren)에 올린 그림들이 최근 영국 BBC에 소개되면서 국내외에 화제가 됐다.

이 동문은 브라질에서 은퇴 후 부인 안경자(국어교육61-65) 동문과 손주들을 돌보는 낙으로 살았다. 딸과 아들 가족이 한국과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매일 직접 운전해 아이들을 등교시키던 즐거움도 사라졌다. 무기력해진 아버지가 걱정된 아들은 “손주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서 SNS로 공유해보라”고 제안했다. 어린시절 이 동문이 자신에게 그림을 그려



있겠지?”, 한옥 그림에 ‘아파트에서만 살아본 우리 손자들 전통 한옥을 모를 거다’ 등. 이렇게 올린 그림 400여 점 속에 갓난아이였던 손주가 일어나 앉고, 서고 뛰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어느새 인스타그램 팔로워 8만명, 페이스북 ‘좋아요’ 3만 건을 돌파했다.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말처럼 두 동문 ‘할아버지’는 타국의 어린 손주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나이를 잊었다. 눈에 날어도 안 아들 손주들,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랑이 담긴 편지 한 장 써보는 것은 어렵가.



박준창 (인문 79)

<영화> 용의자 X의 헌신

오늘은 재미있는 일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살인사건을 탐으려는 천재 수학자 와 이를 밝혀 내려는 천재 물리학자의 두뇌 대결을 그린 영화인데, 복선과 반전이 놀랍다.

야스코라고 도시락 집을 운영하는 여자가 있다. 인간 쓰레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미사토라는 중학생 딸과 함께 산다. 야스코는 평소 도시락 집을 내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락 집 비즈니스에 만족하며 사는데 어느 날 이 개 같은 전 남편이 야스코를 기어코 찾아내어 집에 까지 온다. 미사토가 크면 술집에 내 보내어야 한다는 전 남편의 말에 격분한 미사토가 전 남편 머리를 내려치면서 싸움이 발생되고 야스코와 미사토는 함께 싸우다 전 남편을 죽이고 만다.

이 모든 소리를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 이시가미가 듣게 된다. 이시가미는 야스코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야스코는 바퀴벌레 때문에 딸과 소란을 피웠다며 돌려 낸다.

이시가미: “죽었나요?” 야스코: “예?” 이시가미: “바퀴벌레 말입니다.” 죄송하다며 서둘러 문을 닫는데 이시가미는 가지 않고 있다가 닫힌 문 사이에 두고 말한다. “바퀴벌레가 아니죠?”

이시가미: “죽었나요?” 야스코: “예?” 이시가미: “바퀴벌레 말입니다.” 죄송하다며 서둘러 문을 닫는데 이시가미는 가지 않고 있다가 닫힌 문 사이에 두고 말한다. “바퀴벌레가 아니죠?”



저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12학년 휴학생이자 창업한지 세달남짓된 에그코어의 대표 김미래입니다. 창업 초기기에 제가 대표이자 직원 전체입니다. 전 아직도 창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창업을 내 것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한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여겨 시작하였습니다. 에그코어는 제가 바꾸고 싶은 세상의 일부분을 변화시키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의류를 전공하시고 현재 한지공예가이신 어머니 아래 패션, 그리고 한국의 미를 보고 자랐습니다. 한국의 색깔은 당돌한 동시에 절제미를 지녔고, 이를 자연스레 연결시킨 컬러의 조화를 중요시한 패션에 익숙해져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의 진로 분야는 패션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 다.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는 교복 하나 줄이지 않는 모범생, 학원갈 때는 화이트 위키에 실베 레깅스를 신었습니 다. 서울대학생들은 물론 다들 고등학교

야스코의 전 남편 시체가 금방 발견이 되고, 여 형사 우즈미를 포함한 경찰들이 바로 야스코의 아파트로 들어 닥친다. 하지만 야스코의 알리바이는 완벽하다. 살인이 일어났던 날 딸과 함께 영화를 봤다는데, 극장 표도 있고, 증인도 있고, 영화 구경 후의 증인까지도 있었던 것.

그런데 수사가 어려울 때마다 우즈미가 도움을 구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으



니 이 친구가 동안에 꽃 미남인 물리학과 교수 유카와. “과학으로 증명 안된 것, 예컨대 사랑 같은 것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남자, 우즈미의 사랑을 몰라주는 남자. 처음 전혀 이 사건에 관심이 없던 유카와는 용의자가 미녀라는 말에 갑자기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웃이 이시가미라는 말을 듣고서는, 자신은 천재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데 이시가미야 말로 천재라고 한다.

집착하시겠지만 모녀의 방어진략은 다 이시가미의 연출에 의한 것. 경찰이 앞으

<사는 이야기>

‘에그코어’가 써 나가는 ‘청춘 시나리오’

때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실력자들이죠. 저 또한 엄청난 욕심쟁이 여우였기에 학교에서는 불타는 공부를 하였지만 저의 스트레스 해소는 바로 옷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류학과 진학을 꿈꾸었고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에 진학하여 옷이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을 강의와 책으로 배웠 습니다. 하지만, 패션은 글자가 다가 아닌 직접 보고, 입고, 겪어야 하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외향보다 공부를 신기할만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장인 서울대학교에서만 패션을 습득할 수 없어 전 항상 밖을 나섰고, 다양한 기회들을 찾아나갔 습니다. 심여개의 패션 대외활동, 패션블로그 운영, 21살에 경험한 제일모직 인턴, 22살엔 패션 매거진 에디터 및 편집 삼 MD, 그리고 23살엔 중국항 스타트업 회사의 2번째 멤버였습니다. 3개월, 6개월, 8개월 씩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24살에 제 첫, 에그코어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전 직장들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배웠고, 홍보 기획 및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영상 기획 및 회사 오피레이션, 투자 등 많은 것을 경험하였으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오로지 에그코어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이 만든 브랜드의 제품이 대학교 생활협동조합과 업체계약을 맺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 하나로 업체에 거래를 제안한다? 그것은 대학교 강의에서의 프로젝트 발표에서 가능할합니다. 사업체로써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현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간’, ‘자금’,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며 모아두었던 비상금은 저의 첫 투자금이 되었습니다. 처음 ‘snutem’ 제작을 마치고 통장잔고는 텅 비었지만 투자금 그 이상을 꽃게 만들어 줄 현물, 옷들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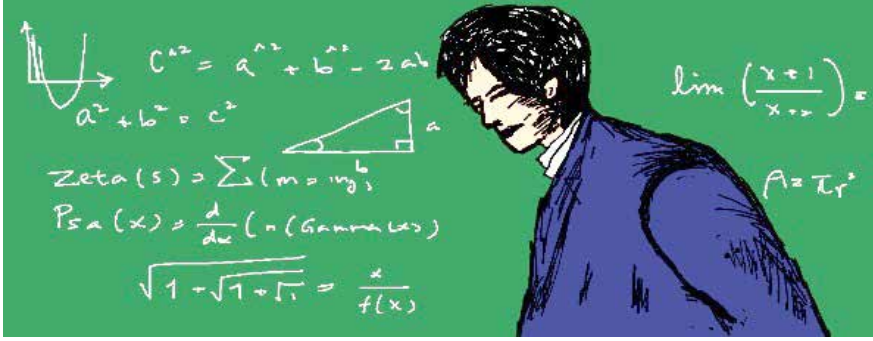
에그코어의 첫 시작은 본교인 서울대학교의 의류제품의 패션 아이템화였습니다. 대학교 단체 또는 기념 의류는 학교의 상징성이 강하여 교의에서는 임기 부담스러웠습니다. 또한 디자인과 제작을 직접 도맡아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질적, 디자인적으로 트렌드를 무시한 채 정지해 있었습니 다. 하지만 자신을 가꾸는 것에 많이 서투른 서울대

로 할 모든 수사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해 모녀를 철저히 대비시킨 것. 알리바이를 만들고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를, 유카와는 이시가미의 연출임을 알고 이시가미에게 한 마디 던진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지?” 이시가미에 대한 도전이다.

이후 영화는 작은 반전을 거쳐 대반전을 보여 주는데... 이시가미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느닷없이 자수한 것. 그것도 범인이 아닌 살인자로... 그러면 이시가미는 왜 이렇게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야스코를 보호하는 것인가? 이시가미는 남편 레 야스코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영화도 범죄 영화 같지만 시각을 바꾸면 실은 헌신적인 사랑 얘기다.

이시가미는 외로운 천재. 그의 외로운 삶에 희망을 준 사람이 야스코다. 야스코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건을 반추하고 있는 유카



학생은 학교의 의류제품을 굉장히 자주 입죠. 서울대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되는 학교 의류를 트렌드 아이템으로 구성하고 제작한다면 흥대, 이태원에 나가도 손색없는 간지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에그코어의 ‘16FW snutem’이 나오게 되었고, 현재 브랜드 자체 온라인 샵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기념품점에 입점되어 판매 중입니다. 또한 학교의 의류제품을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하여 납품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이 만든 브랜드의 제품이 대학교 생활협동조합과 업체계약을 맺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 하나로 업체에 거래를 제안한다? 그것은 대학교 강의에서의 프로젝트 발표에서 가능할합니다. 사업체로써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현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간’, ‘자금’,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며 모아두었던 비상금은 저의 첫 투자금이 되었습니다. 처음 ‘snutem’ 제작을 마치고 통장잔고는 텅 비었지만 투자금 그 이상을 꽃게 만들어 줄 현물, 옷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교로의 의류 납품 외에 에그코어라는 컴퍼니 하에 고객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패션 아이템을 현실화시킨 ‘EGGSHELL 에그셸’이라는 패션 브랜드 오피스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니섹스 브랜드로, 에그셸만의 통통 튀는 감성을 담겨 모두가 ‘it item’으로 스스럼없이 다갈 수 있는 제품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기획에 관심이 많아 토크 콘서트, 브랜드 런칭파티, 클럽파티, 대형 페스티벌 운영진 등 다양한 행사를 다 렉팅하고 있습니다. 모두 언젠가 에그코어라는 큰 바운더리 안의 빼대있는 각각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 나갈 것입니다.

(이 글은 본 편집위원회의 요청으로 보내 온 글입니다.)

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기이코 사건의 전모를 밝혀 내는데... 그렇다면 사건의 전모는? 전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하는 전모다. 도대체 이 수학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은폐를 할까 계속 궁금하게 만들면서 엄청난 결말이 나오기에. 내가 원래 추리물을 좋아하는데 결말을 보고서는 내가 기본 좋게 농락당한 느낌. 장소의 변화가 별로 없어 연극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딘가 추리 소설 같은 느낌이 난다. 했더니 역시 소설이 원전이었다. 나 같은 관객들의 알량한 집착을 비웃는 훌륭한 추리물이다.

히가시노 게이고 라는 작가의 유카와를 주인공으로 한 연작 소설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영화로 만든 것. 2008년도 작품.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서 개봉되어 히트했다. 2012년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용의자 X’ 라는 한국 영화도 나왔었다. 유카와 역의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꽃 미남 얼굴을 보는 것과, 여 형사 우즈미 역의 시바사키 코우의 큰 눈과 시원한 목소리를 보고 듣는 것도 영화의 재미 중의 하나.

분당서울대병원 세계 첫 복강경 간절제수술 1,0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9일 '복강경 간절제 1,000례 달성 기념식'을 갖고 최소침습 간절제수술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분당서울대병원이 세계 최초로 복강경 간절제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는 "2003~16년 12월 복강경 간절제수술 1,000례를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최상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호성(의대 84) 간담췌외과 교수팀은 간이식수술에서 복강경을 통한 공여자의 간우엽(右葉)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간우후구역절제술과 간중양두구역절제술들을 포함 거의 모든

간 구역에서 해부학적 간절제를 처음 보고하기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세운 각종 기록과 장기 성적은 복강경 간절제술 우수성을 입증하고 표준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학 선진국의 저명한 외과교수들이 분당서울대병원에 방문해 복강경 간절제수술을 배워갔다.

아시아 여러 국가 의사에게 원격으로 복강경 수술을 교육하는 텔레메디슨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한 교수는 "처음 복강경 간절제술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는 복강경이 간절제술의 표준 술기(術技)로 자리잡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 등 최신 수술기법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을 통해 환자 통증과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술분야를 개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을 통해 환자 통증과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술분야를 개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완 (공대 57)

[역사]

이집트 파라오는 고구려의 가족인가

이집트 문명은 인류문명에 기여처럼 나타나서 우리는 신비스럽게만 이야기한다. 그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집트를 지배한 파라오의 무덤이 땅위에 피라미드가 있고 또 다른 땅 밑에 지은 투탄카멘의 것과 같은 귀족 무덤이 있다.

고구려 영토였던 지린성주위의 피라미드와 한반도의 고분에서 보여주는 고구려 문화와 공통성이 많다. 동아시아의 피라미드는 흙산(Mound)과 선조의 돌무덤인 고인돌(Dolmen)이 수천 년 동안에 함께 성장하면서 적석총이 나타나고 방추형 돌무덤(Pyramid)으로 진화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의 흙산문화는 이집트보다 2,000년 이전부터 적석총을 짓기 시작했다.

땅속에 지은 투탄카멘의 고분을 보면 고구려 고분처럼 전실과 후실이 나누어진 같은 양식이다. 전실은 생시의 모습을 남기고 후실은 사후의 모습을 보존하는 고구려 분묘의 형식과 같다. 1949년에 발굴 조사되었던 북한 황해남도 안악군에 위치한 안악3호 고분의 벽화에는 고구려의 생활 풍습을 잘 그려놓았다. 고국원왕 때인 서기 357년에 만들어졌지만 수천 년 전 이집트 문화 이전부터 내려오는 생활환경을 보여준다. 전실의 벽화에 주인공이 수레를 타고 가는 행렬도와 사냥에서 잡은 짐승들을 걸어놓은 부엌에 세워놓은 수레를 본다. 고구려와 이집트에서 귀족은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던 공통성을 본다.

동아시아에서 농사를 지으며 연자뱀들을 만들어 돌리고 물레바퀴를 돌리며 바퀴의 개념은 일찍부터 시작하였다. 나무바퀴 하나의 일륜차(Wheelbarrow)에서 바퀴 두개의 손수레, 인력거, 달구지, 마차, 그리고 진시황제의 전차에 이르는 진화과정을 볼 수 있다. 수레의 진화는 현대생활까지 보존되어 왔기에 지금도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진화과정을 볼 수 없다.

신석기시대 고인돌에서 나타난 금속 무기와 장식품, 그리고 금속 도구로 돌을 조각한 옥돌 유물들까지 북한과 만주지역에 석탄밭에서 녹여낸 강철 생산의 결과로 쇠바퀴가 생산되었다. 신석기시대 고인돌에서 청동유물이 처음 발굴되었기에 금속문화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야생마를 집에서 기르는 생활도 만주지역에서 시작하였다. 만주들만에 허다 많은 말 농장은 말 종류 중에 가장 일찍 나타난 종자라고 한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 노새가 태어나는 오랜 세월을 볼 수 있다.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하지만 말이나 당나귀보다 힘이 세고 인내심이 강한 동아시아에서 태어난 말이다. 투탄카멘이 타고 다닌 말이 동아시아에서 온 듯하다.

투탄카멘의 전실은 두 개이며 파라오가 전차를 타고 흑인들과 아랍인들을 정벌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후실도 두 개로 나누어져 현실과 사상이 있다. 현실에 시신을 가면으로 덮는 풍습도 동아시아의 상나라 고분에서 본다. 사당에 유골함을 지키는 소와 개도 동아시아의 가족이다. 소는 동아시아의 오랜 농경생활에



이집트 무덤의 벽화



황해남도 안악군 고구려 안악3호 고분의 벽화

동반했고 개는 만주의 유목생활에서 함께 살아온 짐승이다. 한국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름이 없으면 "개똥아" 나 "소똥아" 로 불러주었듯이 농경과 유목이 합하여 수만 년의 진화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동아시아의 문화이다.

투탄카멘의 이름도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처럼 고구려의 발음의 이름이다. 전실에는 나전철기 같은 동아시아의 가구들이 가득하다. 투탄카멘이 즐겨 타던 전차를 자세히 관찰하면 온 몸통을 동아시아의 청동기에서 흔히 보는 '감긴 실 무늬'로 감싸서 장식하였다. 한나라 사학자의 (사기)의 기록에 북두칠성은 북극성의 수레 (車馬)라고 하였기에 신화시절에 이미 수레가 있었다.

투탄카멘의 무덤전실에 강철단검, 전차(Chariot)의 쇠바퀴와 축도 동아시아의 금속문화의 산물인 듯하다. 고인돌시대에 석탄밭에서 쇠와 청동을 재작하면서 동아시아에 동아시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의 하나라 2,100 BC의 전차전쟁은 수천대의

전차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 전차문화의 극성기였다. 그 때 패배당한 국가의 귀족들은 멀리멀리 도피하였다. 투탄카멘의 유골과 함께 보관된 원앙항해의 나무배의 모형은 파라오가 동아시아에서 타고 온 돛단배가 아닐까 싶다.

혈연학자들은 5만 년 전에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도달했다고 하기에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사이에 해변 통로가 이미 열려있어 문화의 교류가 있었다. 동아시아는 인류가 처음으로 겨울을 만나 농사짓기 시작하여 인구가 증가하였기에 지금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1만 년 전의 동아시아의 토기가 서남아시아보다 5,000년 이전의 역사로 나타나고 동아시아의 금속문화가 서남아시아보다



황해남도 안악군 고구려 안악3호 고분의 벽화

2,000년 앞서서 발달된 역사적 사실을 보아도 그렇다.

이집트의 유적은 기원전의 건축물이고 고구려 고분은 기원후의 건축물이지만, 이집트의 문화는 돌연변이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고구려 문화는 이집트 이전부터 멀리서 바위를 끌어와 시작한 고인돌이 피라미드로 성장하였고 수레, 달구지, 마차, 전차, 등의 수만 년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수나라대군을 물리친 역사와 동아시아의 훈족과 몽골이 유럽을 침략해 들어간 역사로 이어진다.

투탄카멘의 묘를 발굴한 하워드 카터는 깨진 도자기에서 닭의 그림을 보고 파라오의 음식에는 아프리카에 없는 닭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고구려 무용총 천정에 그려진 닭의 그림이다. 이집트의 문화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토가 말한 것처럼 아틀란티스(모든 문화의 어머니)에서 온 외래문화이다. 역사 학자들은 아직도 아틀란티스가 어디인지 찾고 있지만, 머지않아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면 아틀란티스가 동아시아였음을 이해하기에 이를 것이다.

이달의 사진 'Sunset at Fire Fall, Yosemite National Park'

EXIF: SONY ILCE-7RM2, 1/6sec ISO100-1.3EV F13 70mm



지난 2월 23일에 일년에 딱 한 주동안 볼 기회가 있는 Yosemite의 Fire Fall을 찍으러 다녀왔습니다. 근처 호텔에 묵으며 이를 저녁 예정으로 시도했는데 첫날 대박을 쳤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않고 오후 4시까지도 눈이 내려서 포기하고 돌아간 사진가들도 많았는데 우리일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을 맞으며 삼각대를 세워놓고 속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좋은 spot에서 찍으려고 그 몇분간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삼각대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사진가들로 비좁고 뻥뻥한 공간에서 기다린 끝에 5시 반부터 빛이 살짝 꾸를 사이로 비취

더니 거의 20분간을 일명 'Horse Tail' 이라고도 부르는 가느다란 폭포와 때마침 나타난 운무가 석양빛을 받으니 마치 폭포가 불타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사진 찍으러 유명한 spot들을 찾아다니며 찍었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디옌 찍지 못하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사진 실력이 모자라서 그때의 그 황홀했던 장면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아쉽지만 그런대로 그 순간을 동문님들과 share하고 싶어 보냈습니다. 박은숙(미대 62)

편집 후기	
살다보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회보를 만드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보기 좋게 만	들지.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은 회보의 모든 면을 채울 글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수도 없이 여러번 이메일함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기다립니다. 회보 발행 날짜는 다가오는데, 들어 온 원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어떡하나요? 제가 글을 다 써버리나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우리 동문님들이 해 주셔야 하는 건데.. 요즘같은 인터넷 세상에 읽을만한 글들은 차고 넘치지만 동창회보, 아니 '서울대 미주동창회보'이다	보니, 미주동문이 아닌 사람들의 글을 실을 수도 없고, 7,000여명 독자 중에 쓰고 싶은 분들이 20명, 10명이 안 되는걸까? 삶의 연륜이나 경험, 학식이나 지식,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참 많을텐데... 편집장 김정현(공대 68)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지부 :
주소 :	전 주소 :		
업소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특 광고비	일반광고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	<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	*문의: 사무국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7.7~2018.6)	<input type="checkbox"/> \$240 (2017.7~2018.6)	484-344-5500 Ext 302
<input type="checkbox"/> 연 \$1,000	1년: \$75 / 2년: \$150	1년: \$240 / 2년: \$480	Email: general@snuua.org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input type="checkbox"/> Education (장학금)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2월 말까지 회비납부 841명 / 총회원 7019명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박종식(의대 46)	이호진(보건 74)	안병협(공대 58)	박정석(간호 71)	전재우(공대 61)	변우진(인문 81)	조병권(공대 64)	박은희(미대 68)	안승덕(수대 51)
남가주 S.CA/NV	박찬호(농대 63)	이희종(공대 68)	안호삼(문리 58)	박수안(의대 59)	정인식(상대 58)	송욱진(치대 87)	박인영(의대 50)	박일영(의대 69)	오경호(수의 60)
강경수(법대 58)	박태호(치대 66)	임동규(미대 57)	오명주(간호 77)	윤기철(의대 65)	오영주(간호 45)	송창원(문리 53)	차대양(공대 55)	박용우(문리 61)	오창훈(공대 81)
강동순(법대 59)	박해욱(간호 69)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원미람(미대 65)	정창동(간호 68)	왕규현(의대 56)	최두원(의대 59)	박용우(문리 61)	유우영(의대 61)
강정훈(미대 56)	박희자(음대 68)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대환(의대 59)	최해운(의대 62)	주한수(수의 62)	최대한(의대 53)	박용영(공대 65)	윤영문(법대 59)
강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수(법대 58)	장기창(공대 56)	장기창(공대 56)	최형우(법대 69)	조이미(음대 61)	최병두(의대 52)	박용영(공대 65)	임수암(공대 62)
강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배윤숙(미대 65)	장소현(미대 65)	최영혜(간호 47)	조정현(수의 58)	최혜숙(의대 53)	박진우(상대 70)	정양수(의대 60)
고석규(치대 65)	백소진(문리 55)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임화식(치대 59)	이문영(문리 61)	조중수(공대 67)	최희수(의대 67)	박현성(의대 60)	정인태(의대 58)
고영순(음대 59)	백옥자(음대 71)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이장우(문리 72)	주공로(공대 68)	최정현(의대 55)	정인태(의대 58)	정일화(상대 55)
고용규(의대 69)	백해란(미대 70)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고재천(공대 57)	선우원근(공 66)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공대용(공대 68)	서동영(상대 60)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곽용길(문리 59)	서영석(문리 61)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권기성(경영 72)	서지원(공대 69)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권영재(의대)	성우원근(공 66)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권치균(공대 51)	성낙호(치대 63)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건진(문리 62)	성주경(상대 68)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경수(치대 58)	손기용(의대 55)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경수(간호 68)	손선행(간호 69)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광은(음대 56)	손영아(음대 85)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규현(법대 53)	손학식(공대 61)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기태(의대 52)	손기용(의대 55)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기형(상대 75)	손기용(의대 55)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동산(법대 59)	신영찬(의대 63)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동석(음대 64)	신정식(상대 64)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동환(문리 61)	신정연(미대 61)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병연(공대 68)	심상준(상대 54)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병연(공대 58)	안병일(의대 63)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석두(농대 58)	양승문(공대 65)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석홍(법대 59)	양은택(의대 58)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선기(법대 59)	양창효(상대 54)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성복()	양태준(상대 56)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성욱(간호 81)	영동해(농대 74)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성환(의대 65)	오선웅(의대 63)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수영(사법 57)	오송자(사대 59)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순길(법대 54)	오영호(간호 60)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순덕(간호 61)	우훈식(상대 61)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순자(치대 57)	유종민(공대 64)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 인(수의 63)	유덕훈(상대 48)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영태(법대 58)	유석홍(상대 61)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영희(사법 56)	유의영(상대 56)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용재(의대 60)	유재환(상대 67)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원경(약대 59)	유진형(상대)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인준(공대 74)	유태식(의대 61)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일영(의대 65)	윤경민(법대 55)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재중(치대 62)	윤석철(상대 60)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재호(간호 69)	윤용철(공대 55)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종태(상대 58)	윤재자(미대 62)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종표(법대 58)	이건일(의대 62)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준일(공대 62)	이 관(공대 55)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창무(음대 53)	이광재(공대 59)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태윤(법대 53)	이규달(의대 62)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태우(의대 57)	이규환(의대 61)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홍택(문리 66)	이계재(상대 52)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희재(간호 64)	이준수(상대 58)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희재(사대 63)	이미정(의대 78)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김희창(공대 63)	이방기(농대 59)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나두섭(의대 66)	이범식(공대 61)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나민주(음대 65)	이병준(상대 55)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나승욱(문리 59)	이서희(법대 70)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나정자(간호 70)	이성숙(공대 56)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노병호(공대 61)	이소희(의대 61)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문덕수(공대 73)	이영일(문리 53)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문병길(문리 61)	이원익(문리 73)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문인일(공대 51)	이원택(의대 65)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민병돈(문리 58)	이장길(치대 63)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민수봉(상대 55)	이재권(법대 56)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대균(수의 57)	이재홍(공대 71)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부강(사대 64)	김영범(의대 58)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성욱(상대 58)	이정근(사대 60)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병희(음대 66)	이정화(공대 52)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우성(상대 77)	이정희(음대 55)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원준(공대 53)	이종도(공대 66)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은숙(미대 62)	이종무(간호 69)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인수(농대 64)	이준호(상대 65)	김희창(공대 57)	배윤숙(미대 65)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인창(농대 65)	이중희(공대 53)	김중경(공대 48)	방명진(공대 73)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주중광(약대 60)
박일우(의대 70)	이창무(공대 54)	김홍제(상대 53)	배병욱(음대 58)	김정현(미대 56)	장소현(미대 65)	차국만(상대 56)	최정현(의대 55)	송병준(약대 68)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홍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계동휘종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MD · VA · 워싱턴 DC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301)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io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항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외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Thank you
53명 종신이사 현재 (\$3000이상)
김중권 (의대 63)
심상은 (상대 54)
이병준 (상대 55)
오홍조 (치대 56)
이세열 (사대 57)
박종수 (수의 58)
서동영 (사대 60)
전희택 (의대 60)
임낙균 (약대 64)
한홍택 (공대 60)
노명호 (공대 61)
이중도 (공대 66)
제영혜 (가정 71)
서치원 (공대 69)
방명진 (공대 73)
이청광 (상대 61)
임용오 (의대 57)
이홍표 (의대 58)
조용원 (문리 66)
* 오인석 (법대 58)
윤정욱 (약대 50)
이전구 (농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재덕 (법대 60)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방은호 (약대 43)
박윤수 (문리 48)
강연식 (사대 58)
이교락 (의대 53)
조형준 (문리 62)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서중민 (공대 64)
박태우 (공대 64)
강영빈 (문리 58)
조시호 (문리 59)
이상강 (의대 70)
오인환 (문리 63)
김재영 (농대 62)
손재옥 (가정 77)
김명자 (문리 62)
오세경 (약대 61)
권기현 (사대 53)
고윤희 (보건 69)
오재민 (치대 33)
박경민 (의대 53)
남상용 (공대 52)
서영석 (의대 55)
한귀희 (미대 68)
(* 한원 이상 내신분)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귀)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규(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 제영해(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신희(공)
고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 심희진(음) 사업국장 | 한중희(공)
조직국장 | 백옥재(음) 삽외국장 | 박형준(공)
재무국장 | 이상숙(가정)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사무장 | 서경희
(Webmaster)

회보 : 발행인 손재욱(가정)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주필 | 정홍택(상)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상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 한정민(농)
황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 김태연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원(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묵(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상대 73)	213,380,3801	gamkocpa@hot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CT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이대영(문리 64)	516,770,0070	dyldy88@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차기회장	박영철(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달라스 LA/DALLAS	회장	이석호(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공대 56)	520,271,2601	youn_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엘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상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an-Dec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_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한민(공대 84)	425,444,3899	m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혜린(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치영(법대)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919-913-5570	wschee@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공대 86)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김제권(사대 68)	918,810,6393	jaykwonkim@hotmail.com	Sept-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중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뉴욕 스파 앤 사우나
NEW YORK SPA & SAUNA

1490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718-463-0001 김승호(공대 71)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대표: 이승훈 (상대 74)

Tel: 562-633-7400

Paper Russells

eco-friendly

STATIONERY & GIFTS FOR PET AND NATURE LOVERS
MADE IN U.S.A.

김명혜 (미대 77)

WWW.PAPERRUSSELLS.COM P. 866.517.7738
INFO@PAPERRUSSELLS.COM F. 801.479.4663

서울대 동문 10% 할인

후자이긴
아까운 당신

기회환해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26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KISS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SS®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